

2026 **브라질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9
가. 정부 현황	09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3
3. 주요 이슈 Pick	21
가. 미국 50% 관세 부과 대응 총력	21
나. 자국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무역장벽 강화	22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5
가. 시장 특징	25
나. 무역	30
다. 산업	37
라. 투자	46
2. 유망 산업	54
가. 자동차 부품	54
나. 항공기 부품	60
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64
3. 협력 기회	68
가. 통상·G2G	68
나. 프로젝트	69
다. 공급망	71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76
2. 진출전략	78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90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93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95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96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9 |
| 3. 주요 이슈 Pick | 21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하락) 브라질 '26년 경제성장 1.6~2.1% 전망

주요 기관별 브라질 경제성장을 전망치

(단위: %)

기관명	'25 성장률(예측 시점)	'26 성장률 전망치(예측 시점)
IMF	2.3('25년 7월)	2.1('25년 7월)
World Bank	2.4('25년 6월)	2.2('25년 6월)
OECD	2.1('25년 6월)	1.6('25년 6월)
ECLAC	2.3('25년 8월)	2.1('25년 8월)
브라질 재무부	2.5('25년 7월)	2.4('25년 7월)
브라질 중앙은행	2.1('25년 8월)	1.9('25년 8월)

- 세계 주요 경제 기구는 2026년 브라질 경제성장을 1.6~2.1% 사이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5년 대비 0.1~0.5%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소비) 정부의 사회보장·보조금 확대 및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비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율 및 환율이 소비 제약
 - (생산) 경기둔화에 따른 하방 압력,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주요 산업인 농업 및 제조업의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투자)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여 기업 투자가 일부 회복되나, '26년 하반기 대선을 포함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재정 긴축 논의는 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교역) 글로벌 수요 둔화로 수출 감소, 내수 개선으로 수입 증가하여 무역 흑자 축소 예상

□ (부진 요인)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 (대내) '26년 대선 및 정부의 재정 리스크가 경제적 불확실성 초래
 -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이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론 분열 및 정책 예측 가능성 저해
 - 높은 고정자출 비중(92%)으로 공공재정이 취약하며, 기초 재정수지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자출 삭감안은 시장에서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 신뢰도 하락

- (대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50%) 및 글로벌 경기둔화
 - 미국의 관세 부과로 對미 수출 감소, 글로벌 원자재 수요 감소로 총 수출 감소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207.90	209.17	210.10	210.86	211.70	212.58	213.36	214.08
명목 GDP	십억 달러	1,870	1,480	1,670	1,950	2,190	2,170	2,130	2,190
1인당 명목 GDP	달러	9,010	7,060	7,950	9,260	10,350	10,210	9,960	10,220
실질 성장률	%	1.2	-3.3	4.8	3.0	3.2	3.4	2.3	2.1
실업률	%	12.0	13.8	13.2	9.3	8.0	6.9	7.2	7.3
소비자물가 상승률	%	4.3	4.5	10.0	5.8	4.6	4.8	4.9	4.4
재정수지(GDP 대비)	%	-3.7	-8.1	-3.9	-3.6	-5.1	-4.7	-0.5	0.25
총 수출	백만 달러	223,579	212,622	280,815	334,136	339,696	337,046	340,351	344,486
(對韓 수출)	백만 달러	3,341	3,763	5,560	6,188	5,607	5,448	-	-
총 수입	백만 달러	173,526	158,930	219,408	272,611	240,793	262,870	285,909	296,433
(對韓 수입)	백만 달러	4,931	4,084	5,042	5,400	4,769	5,093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50,053	53,692	61,407	61,525	98,903	74,176	54,442	48,053
경상수지	십억 달러	-65.00	-24.91	-40.41	-42.16	-27.93	-61.19	-48.64	-49.1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3.94	5.16	5.40	5.16	4.99	5.39	5.50	5.8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90	-134	205	321	299	124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654	283	507	734	659	59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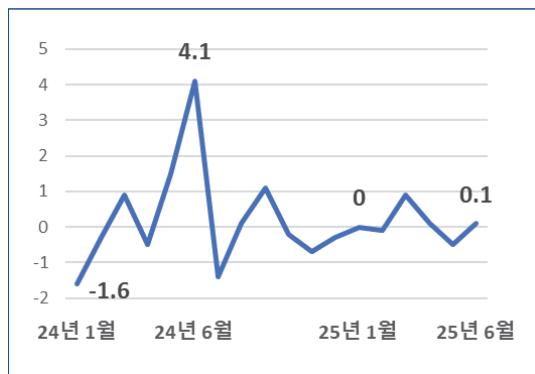
주: '25년은 추정치, '26년은 전망치

자료: 인구/명목 GDP/1인당 명목 GDP/실질성장률/실업률/소비자물가상승률/재정수지/경상수지(IMF), 총 수출/총 수입/무역수지(Euromonitor), 對韓 수출입/환율/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B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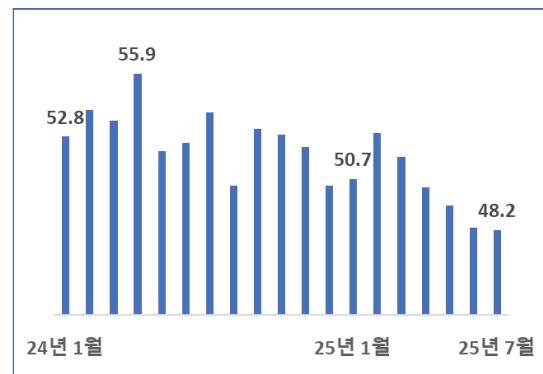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5년 2.0~2.3% 성장률 예상
 - 코로나19 이후 '21~'24년 3~4%대의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경기둔화 사이클 진입
- (생산) 산업생산증가율 및 구매관리자지수 기준치 하회하며 생산 부진 지속
 - 높은 금리로 인한 소비 부진, 혜알화 평가절하에 따른 중간재 수입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
 -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5년 8월 기준 48.2포인트로, '24년 1월 이후 1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5개월 연속 감소

〈산업생산증가율(전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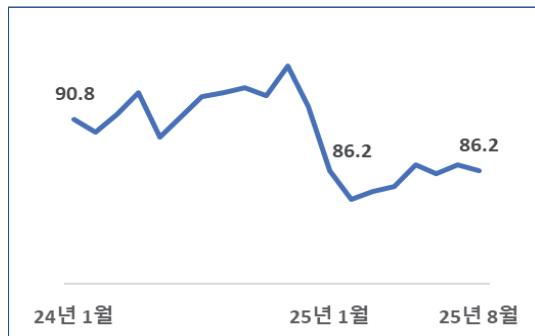
〈구매관리자지수(P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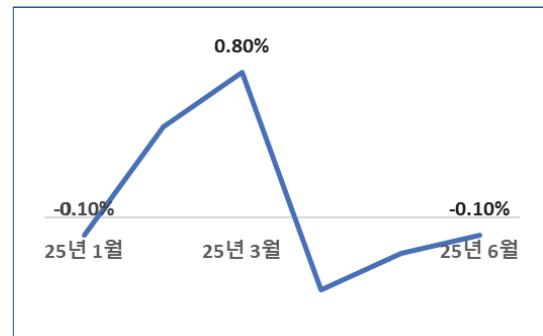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중앙은행,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 (소비) '25년 8월 기준 회복 추세이나 불확실성 존재
 - '24년 말부터 높은 금리, 글로벌 통상 환경 급변 등으로 침체된 소비가 '25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 종료, 대외 환경 적응 등에 따라 소폭 회복 추세
 -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분쟁 등에 따른 경기 둔화로 회복 불확실성 존재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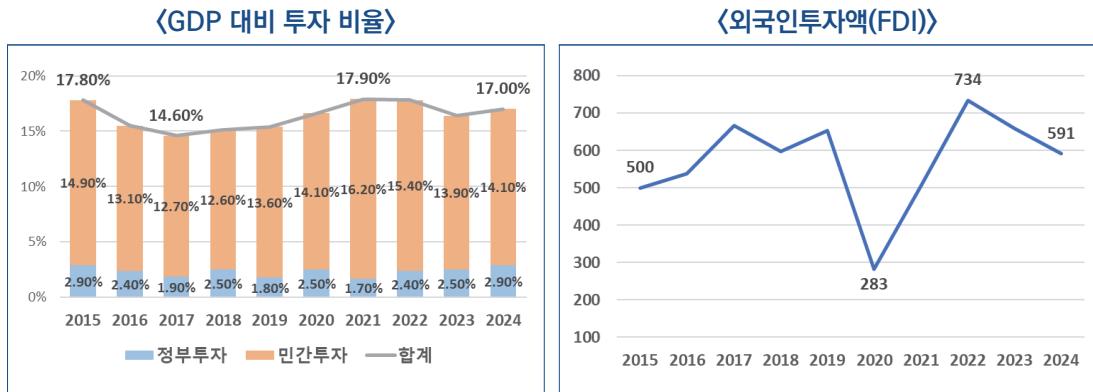


〈소매판매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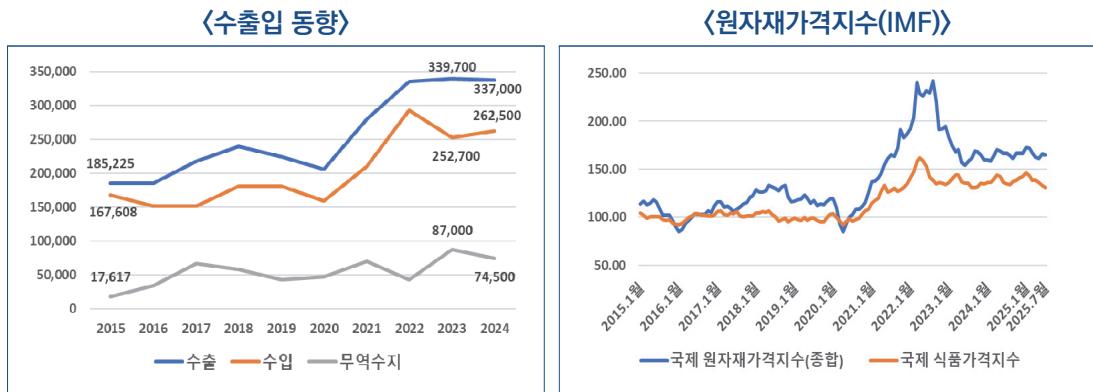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중앙은행,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 (투자) 적정 수준 대비 낮은 투자율 지속
 - 주요 국제 경제 기구(OECD, IMF)는 브라질이 2% 중장기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투자 비율을 20%로 권고하지만 17% 수준 지속
 - (민간투자) 브라질은 민간투자가 총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
 - (정부투자) '23년 룰라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 '신성장촉진프로그램(Novo PAC)' 실시로 정부 투자 비율 증가 추세
 - (외국인투자) '20년 코로나19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FDI는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자료: 브라질 산업개발은행(BNDES), 중앙은행,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 (대외교역) 국제 원자재 수요 지속에 따른 견고한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 유지
 - (수출) 브라질은 광물 및 농산물이 주요 수출품으로, '22년 이후 국제 원자재 수요가 지속되어 견고한 수출 유지
 - (수입) 해양화 환율 약세로 수입가격이 상승하여 수입 증가 추세
 - (무역수지) '23년 870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후 '24년 소폭 감소하였지만 지속적인 흑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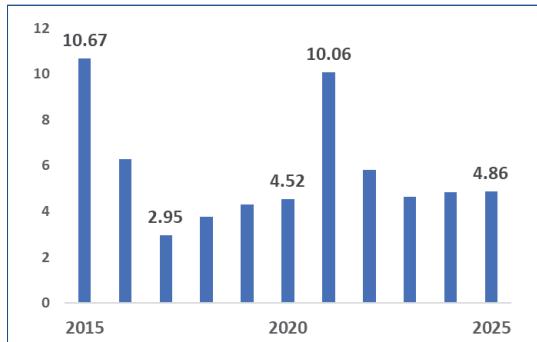
자료: 브라질 산업부(MDIC), IMF,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 (기타) 실업률↑, 물가↓, 금리↓, 환율↑ 추세
 - (실업) 브라질 실업률은 '24년 6.9%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후 상승 추세
 - (물가) '24년 인플레이션을 4.86%를 기록하여 중앙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율(4.5%)을 초과한 후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하락 추세
 - (금리) '25년 7월 기준 기준금리는 15%로 '24년 9월부터 지속되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금리 인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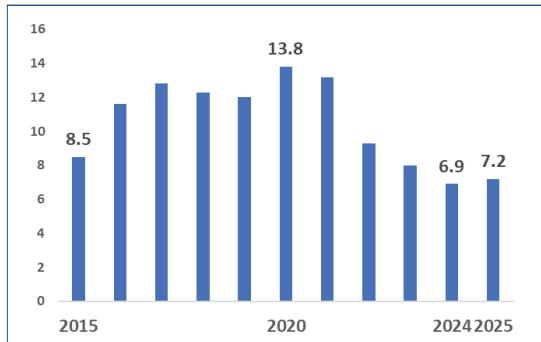
2026 브라질 진출전략

- (환율) 정부 재정 약화, 글로벌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대로 달러-헤알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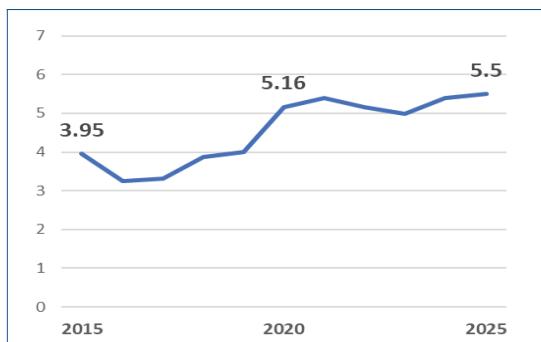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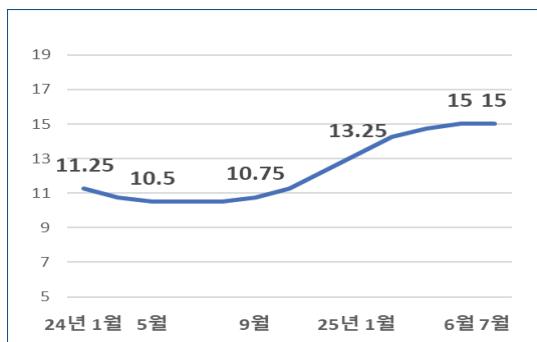
〈인플레이션〉



〈실업률〉



〈금리 변화〉



자료: 브라질 지리통계청(IBGE), 중앙은행(BCB),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2. 정치(정책) 환경

- (정치) '23년 집권한 룰라 3기 행정부는 범여권을 형성하여 정책 동력 확보
- (정책) 사회복지 확대, 자국 산업 육성 및 보호, 다자주의 외교 강화

가. 정부 현황

□ 브라질 행정부 및 의회 구성 현황

- (행정부) 진보 성향의 룰라 대통령은 '22년 말 실시된 대선에서 보수 성향의 전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1.66%로 이겨 브라질 역사상 최초의 3선 대통령으로 '23년 1월 1일부터 임기 수행 중
 - 룰라 행정부는 총 38개 장관급 부처로 구성(31개 부처, 7개 대통령 직속 기관)

브라질 제35대 대통령 룰라 주요 약력

정당	사진	성명	주요 약력
노동자당 (PT)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Luiz Inácio Lula da Sil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 1945년 10월 27일 • (학력) 초등학교 중퇴 • (경력) 노동운동 및 정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80) 상베르나르두캄푸 및 디아데마 금속노조 창립 및 대표 - (1980~85) 노동자당(PT) 창당 참여 및 활동 - (1986~89) 상파울루 연방 하원의원 - (2003~10) 브라질 대통령(1~2기) - (2011~18) 국제 및 사회 운동 활동, - (2023~현재) 브라질 대통령(3선)

자료: 브라질 정부 홈페이지

브라질 대통령 및 내각 구성

직위(기관명)	성명	전 직위
농업부 (Ministério da Agricultura e Pecuária)	카를루스 엔히키 바케타 파바루 (Carlos Henrique Baqueta Fávaro)	마투그로수 주 상원의원
도시부 (Ministério das Cidades)	자데르 폰테넬리 바르발류 필류 (Jader Fontenelle Barbalho Filho)	파라 주 MDB당대표
과학, 기술 및 혁신부 (Ministério da Ciência, Tecnologia e Inovação)	루시아나 바르보사 데 올리베이라 산토스 (Luciana Barbosa de Oliveira Santos)	페르남부쿠 주 부지사
통신부 (Ministério das Comunicações)	프레데리쿠 시케이라 필류 (Frederico Siqueira Filho)	텔레브라스(Telebras) 사장

직위(기관명) 성명 전 직위	성명	전 직위
문화부 (Ministério da Cultura)	마르가레치 멘네지스 다 푸리피카오 코스타 (Margareth Menezes da Purificação Costa)	예술가
국방부 (Ministério da Defesa)	조제 무시우 몬테이루 필류 (José Múcio Monteiro Filho)	연방회계법원(TCU) 원장
농업 개발 및 가족 농업부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Agrário e Agricultura Familiar)	루이스 파울루 테이세이라 (Luiz Paulo Teixeira)	상파울루주 연방 하원의원 노동당(PT) 원내 대표
사회 개발, 가족 및 기아 퇴치부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e Assistência Social, Família e Combate à Fome)	조제 웨링톤 바로조 지 아라우조 디아스 (José Wellington Barroso de Araújo Dias)	피아우이주 연방 상원의원
개발, 산업, 상업 및 서비스부 (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Comércio e Serviços)	제랄두 조제 호드리게스 알크민 필류 (Geraldo José Rodrigues Alckmin Filho)	상파울루 주지사
인권부 (Ministério dos Direitos Humanos e Cidadania)	마카에 마리아 에바리스토 도스 산토스 (Macaé Maria Evaristo dos Santos)	미나제라이스 주 의원
교육부 (Ministério da Educação)	카밀루 소브레이라 데 산타나 (Camilo Sobreira de Santana)	세아라주 연방 상원의원
기업가 정신, 소기업 및 중소기업부(Ministério do Empreendedorismo, Microempresa e Empresa de Pequeno Porte)	마르시우 루이스 프랑사 고메스 (Márcio Luiz França Gomes)	항만·항공부 장관
체육부 (Ministério do Esporte)	안드레 루이스 카르발류 히베이루 (André Luiz Carvalho Ribeiro)	마라냥 주 연방 하원의원
재무부 (Ministério da Fazenda)	페르난두 하다드 (Fernando Haddad)	USP정치학 교수
공공 서비스 관리 및 혁신부 (Ministério da Gestão e Inovação em Serviços Públicos)	에스테르 드웨크 (Esther Dweck)	리우데자네이루연방 대학교(UFRJ) 교수
인종 평등부 (Igualdade Racial)	아니엘리 프란시스코 다 실바 (Anielle Francisco da Silva)	마리엘리 프랑쿠 연구소 소장
통합 및 지역 개발부 (Ministério da Integração e Desenvolvimento Regional)	안토니우 발데스 고이스 다 실바 (Antônio Waldez Góes da Silva)	아마파 주지사
법무 및 공공 안전부 (Ministério da Justiça e Segurança Pública)	엔리케 리카르도 류반도브스키 (Enrique Ricardo Lewandowski)	메르코수르 상설 재판소 중재인
환경 및 기후 변화부 (Meio Ambiente e Mudança do Clima)	마리아 다 실바 바즈 데 리마 (Marina da Silva Vaz de Lima)	상파울루 주 연방 하원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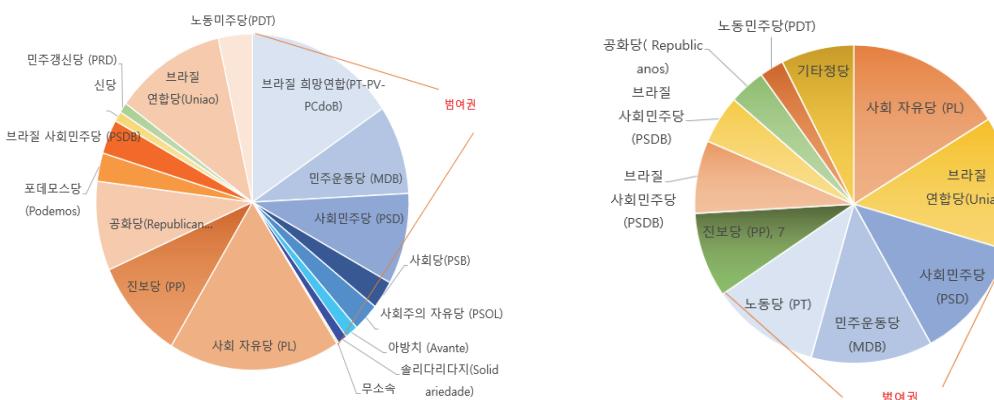
직위(기관명) 성명 전 직위	성명	전 직위
광업 및 에너지부 (Ministério de Minas e Energia)	알렉산드레 실베이라 (Alexandre Silveira de Oliveira)	마니스제라이스 주 연방 상원의원
여성부 (Ministério das Mulheres)	마르시아 헬레나 카르발류 로페스 (Márcia Helena Carvalho Lopes)	룰라 정부 인수위원회 임원
어업 및 양식업부 (Ministério da Pesca e Aquicultura)	안드레 데 파울라 (André Carlos Alves de Paula Filho)	페르남부쿠 주 연방 하원의원
기획 및 예산부 (Ministério da Planejamento e Orçamento)	시모네 나사르 테벳 (Simone Nassar Tebet)	마투그로수두술 주 상원의원, 대선 출마 3위
항만 및 공항부 (Ministério da Portos e Aeroportos)	실비우 세라핌 코스타 필류 (Silvio Serafim Costa Filho)	페르남부쿠 주 연방 하원의원
원주민부 (Ministério da Povos Indígenas)	소니아 보네 지 소우자 실바 산투스 (Sônia Bone de Sousa Silva Santos)	상파울루 주 연방 하원의원
사회보장부 (Ministério da Previdência Social)	볼네이 케이로스 마시엘 (Wolney Queiroz Maciel)	사회보장부 차관
외교부 (Ministério das Relações Exteriores)	마우루 루이스 이에케르 비에이라 (Mauro Luiz Lecker Vieira)	주크로아티아 브라질 대사
보건부 (Ministério da Saúde)	알렉산드르 호샤 산투스 파딜라 (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정책 관계부 장관
노동부 (Ministério do Trabalho e Emprego)	루이스 마리뉴 (Luiz Marinho)	노동당(PT) 당내 지도자
교통부 (Ministério dos Transportes)	조제 헤난 바스콘셀루스 칼레이루스 필류 (José Renan Vasconcelos Calheiros Filho)	알라고아스 주 상원의원
관광부 (Ministério do Turismo)	셀수 사비누 지 올리베이라 (Celso Sabino de Oliveira)	예산합동위원회(CMO) 위원장
사회 소통 비서실 (Secretaria de Comunicação Social)	시도니우 카르도주 팔메이라 (Sidônio Cardoso Palmeira)	정치 전략가로 룰라 대통령연설문 작성 지원
총무부 (Secretaria-Geral)	마르시우 코스타 마세두 (Márcio Costa Macêdo)	세르지피 주 연방 하원의원
정책 관계부 (Secretaria de Relações Institucionais)	글레이시 헬레나 호프만 (Gleisi Helena Hoffmann)	파라나주 연방 하원의원 노동당(PT)전국 당대표
연방 법률고문실 (Advocacia-Geral da União)	조르지 호드리구阿拉우주 메시아스 (Jorge Rodrigo Araújo Messias)	대통령 비서실 차관
대통령 비서실 (Casa Civil)	후이 코스타 두스 산투스 (Rui Costa dos Santos)	바이아주 주지사
국가 감시청 (Controladoria-Geral da União)	비니시우스 마르키스 지 카르발류 (Vinícius Marques de Carvalho)	룰라 정부 인수위원회 임원
안전 보장 사무소 (Gabinete de Segurança Institucional)	마르코스 안토니오 아마로 두스 산투스 (Marcos Antonio Amaro dos Santos)	육군 공제회(Poupeex) 이사회 의장

자료: GOV.BR

- (의회) 상·하원으로 구성된 의회는 정당이 10개가 넘어 대통령은 범여권을 구성하여 정책 동력 확보
 - (하원) 총 513명 중 범여권 210명, 중도 77명, 야권 226명
 - *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인원 257명(50%)
 - (상원) 총 81명 중 범여권 31명, 중도 24명, 야권 26명
 - * 법안 통과에 필요한 최소 인원 41명(50%)

브라질 상·하원 구성

하원			상원		
연번	정당	의석수	연번	정당	의석수
1	PL	89	1	PSD	14
2	FE Brasil	79	2	PL	14
3	UNIAO	60	3	MDB	11
4	PP	50	4	PT	9
5	PSD	45	5	UNIAO	7
6	MDB	44	6	PP	7
7	Republcanos	44	7	PODE	4
8	PDT	17	8	PSB	4
9	PSDB-Cidadania	17	9	Republcanos	4
10	PSB	15	10	PDT	3
11	PODE	14	11	PSDB	3
12	PSOL-REDE	14	12	NOVO	1
13	Avante	7			
14	PRD	5			
15	Solidarity	5			
16	NOVO	5			



자료: GOV.BR사이트,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룰라 3기 주요 정책('23~'26년)

- (기조) 사회적 포용, 국가주도 성장, 친환경 전환, 다자주의 외교
 - 룰라 대통령은 1·2기(2003~2010) 집권 시 추진했던 복지 정책을 부활시키고 제조업 육성 및 다자외교를 통한 균형 경제 발전 추진

룰라 정부 분야별 정책 기조

분야	기조	세부 과제
정치·제도	민주주의 강화, 사회적 대화 복원, 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법부·의회와 협치 강조 • 사회적 협의체(CONSEA 등) 복원 • 환경, 토지, 원주민 관련 부처 권한 강화 • 부패 척결 및 공공행정 디지털화
경제·산업	국가 주도 산업정책 복원, 내수·수출 균형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정책(NIB) : 제조업·첨단기술·녹색산업 육성 • 신성장축진프로그램(Novo PAC) : 인프라 분야 투자 확대 • 국영기업(BNDES, Petrobras 등)을 통한 산업·투자 주도
대외정책	다국적·실용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 다변화(미·중 의존 완화, 아시아·아프리카 교역 확대) • Mercosur 강화 및 EU·중국 등과 무역협정 확대 • 다국적기업 과세 및 OECD 글로벌 조세 협약 이행 • 브릭스(BRICS) 내 협력 확대(개발은행 활용)
사회·복지	불평등 완화, 포용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아·빈곤 퇴치 프로그램 재가동(Bolsa Família 강화) • 보건·교육 공공서비스 확대 • 인종·성별 불평등 해소 정책 강화 • 주거·식량안보·지역사회 투자 확대
환경·기후	환경 보호 및 글로벌 기후 리더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강화, 불법 벌목 단속 확대 • 2030년까지 산림파괴 '제로(Zero Deforestation)' 목표 •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풍력·태양광 중심) • 국제사회 기후 리더십 회복(COP 회의 적극 참여)
디지털·혁신	산업 디지털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스타트업 및 IT 인프라 육성 • 5G 확산 및 인터넷 보급 확대 • 공공부문 전자정부(e-gov) 시스템 강화
인프라	성장동력 확보, 지역 균형 발전, 녹색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철도·도로 현대화 및 물류망 확충 • 에너지 인프라 개선(송전망, 청정에너지 중심) • 주택 및 위생(상하수도) 인프라 투자 확대

자료: 브라질 연방정부 사이트(gov.br), KOTRA상파울루 무역관 편집

- (동향) 연방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은 정부 지출 우선 분야 6개 선정
 - 예산안은 크게 재정지출(3조 1,366억 헤알), 의무적 기본지출(2조 9,524억 헤알), 재량적 기본지출(2,431억 헤알)로 구성
 - * 재정지출 : 국채 이자 지급, 부채 상환 등 금융 관련 지출
 - * 의무적 기본지출 : 사회보장, 연금, 인건비 등 필수 집행 지출
 - * 재량적 기본지출 :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재량적으로 편성 가능한 지출
 - 재량적 기본지출 중 저소득층 대상 빈곤 퇴치 및 의료 복지 확대가 가장 큰 부분 차지

2026년 연방정부 재량 지출 우선순위

분야	목표	세부 예산 (억 헤알)	총 예산 (억 헤알)
기아 퇴치 및 불평등 해소	• 취약 가정에 대한 직접 현금 지급을 통한 빈곤 감소 기여	1,595.4	1,733.3
	• PNATER 원칙 및 가족농업 전략에 따른 기술 지원·서비스(ATER) 확대, 가족농의 생산성·농업생태학·경제적 자율성·축산 등 지원	102.2	
	• 식량 생산, 농업생태학 및 사회 생물 다양성에 중점을 둔 농촌 신용 제도 개선	18.2	
	• 지속가능한 방식의 정착 촉진, 성평등 및 농촌 세대 계승 보장	15.7	
	• 가족농업 식품 구매 확대, 성 평등 참여 확대, PAA 법률에 따른 우선집단 지원, 식품안보 및 영양 공급 강화	1.2	
보건 : 1차 및 전문의료	• 가족농업 생산 역량 강화 : 가족 창업, 협동조합 및 연대 경제, 농산업화, 위생 보장, 지역 주민 참여 확대	0.62	501.7
	• 전문 의료 시술 대기열 축소 및 적시적 의료 접근성 확대	214.1	
	• 가족건강전략(ESF) 확대, 취약지역(강변·퀼롬볼라 포함) 우선 지원	164.1	
	• 예방접종 범위 확대(특히 아동 예방접종 일정)	103.4	
기초교육	• 보건소(UBS) 인프라 확충(건물·장비·물자)	20.1	138.0
	• 공립 기초교육 학교에 재정·기술·물적 지원 제공, 교육격차 완화, 형평성 강화	90.4	
	• 기초교육 학교 물리적 인프라 확충·개선, 접근성·지속기능성 보장, 특수집단(농촌·퀼롬볼라·원주민·장애인·청각장애인 등) 교육 지원	25.4	
	• 연방·주 협력체계를 통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문해력 보장, 3~5학년 학습 회복 추진	17.8	
	• 문해력 보장 및 학습 회복 추진	4.35	
	• 공립 기초교육 지원, 교육 격차 완화, 인프라 확충	0.01	

분야	목표	세부 예산 (억 해알)	총 예산 (억 해알)
신산업화·고용·소득	•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26.0	
	• 보건산업단지(CEIS) 강화, 기술·서비스·연결성 확대, SUS의 기술 취약성 완화, 의료 접근 확대	17.4	
	• 산업·서비스 분야의 국내 생산 확대 (지속기능·부가가치·기술집약·혁신 중심)	14.5	
	• 사회·직업 훈련 촉진	0.92	59.9
	• 국가의 무역 진출 확대·개선 촉진	0.48	
	• 아동·청소년의 노동 착취 철폐	0.29	
	• 연대경제(Economia Solidária) 이니셔티브 실행 및 지역 역동성 강화	0.14	
산림 파괴 방지 및 기후위기 대응	• 작업 환경의 위험 감소	0.04	
	• 브라질 내 산림 파괴 및 토착 식생 훼손 예방·통제	5.08	
	• 농업·산업·임업 부문의 경제·사회·환경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지식 공유·적용·생성 확대	4.99	
	• 육상·해안·해양 생태계의 보호·보존·연결성 확대	2.55	
	• 전통 원주민 공동체의 사회경제적 상황 개선 및 영토의 지속기능한 관리 촉진	1.86	15.0
	• 산림 파괴·식생 훼손 예방 및 통제/생태계 보호·보존·연결성 강화 (보호구역 중심)	0.19	
	• 기후 변화 적응 조치 실행(가뭄·홍수 피해 최소화)	0.17	
	• 재난위험 관리 확대	0.11	

□ 주요 정책

- (산업) 신산업정책(Nova Indústria Brasil, NIB)
 - (개요) 브라질 정부는 제조업 침체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개년('24~'33년) 산업 정책인 ‘신산업정책(NIB)’ 발표('24년 1월)
 - (내용) 6개 핵심 분야를 중점 육성할 예정이며, '26년까지 약 600억 불 투자

브라질 신산업 정책(NIB) 주요 내용

연번	분야	목표 및 중점사항	총 투자액(달러)
1	농산업	목표 • 농업 GDP에서 농산업 비중 23 → 50%로 확대 • 농업 시설의 기계화 수준을 18 → 70%로 확대 중점사항 • 정밀 농업 장비, 농기계	190억
2	보건산업	목표 •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국내 생산 비중 확대 (42 → 70%) 중점사항 • 의약품(백신, 혈청 및 혈액제제), 의료기기, 정보기술	40억
3	인프라	목표 • 집에서 직장까지의 이동시간 20% 축소 • 대중교통 산업 벨류체인에서 내수생산 점유율 25% 증대 중점사항 • 전기·하이브리드, 배터리 벨류체인, 지하철·철도	360억
4	디지털 전환	목표 • 브라질 제조기업의 90%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중점사항 • Industry 4.0, 반도체, 로봇, AI	140억
5	탈탄소화 및 바이오	목표 •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 30% 감축 • 바이오 연료 비중 50%까지 확대 중점사항 • 바이오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 장비	80억
6	국방	목표 • 국방 핵심기술 국산화 50% 달성 중점사항 • 원자력, 통신 및 감지 시스템, 추진 시스템	47억

자료: 브라질 연방정부(Gov.br)

- (연계 프로그램) 중점분야 육성을 위해 7개 연계 프로그램 실시
 - ① Plano Mais Produção(P+P) : NIB의 핵심 금융 채널(공공 및 비환원 자금 지원)
 - ② Mais Inovação Brasil : 혁신 및 디지털화를 위한 R&D 및 비환원금 지원
 - ③ Brasil Mais Produtivo : 중소기업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디지털화 및 경영 컨설팅
 - ④ Depreciação Acelerada : 설비 투자 초기 감가상각을 통해 세제 혜택 제공
 - ⑤ Mover : 자동차 산업의 친환경 전환 및 탈탄소화 지원
 - ⑥ Letra de Crédito do Desenvolvimento : 장기 연구개발 자금 조달 지원
 - ⑦ Margens de preferência em compras públicas : 공공 조달 국산 제품 우대
- (인프라) 신성장촉진프로그램(Novo PAC)
 - (개요) 국가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며,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적·지역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 프로그램
 - (방식) 연방정부, 주정부,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PPP 방식으로 추진
 - (규모) '23~'27년까지 27개 주에 약 1조 7,000억 헤알(3,410달러) 투자를 목표

2026년 분야별 Novo PAC 투자계획

축	세부 분야	세부 내용	'26년 예산(안) (억 해양)
교통	도로	연방 도로 복구 및 보수 사업	82.0
	공항	연방 소유 지역·전략적 중요 공항 개보수	13.9
	수로	수로 터미널 운영	1.4
	철도	동서통합철도 건설(카에테/BA – 바헤이러스/BA – FI-334)	28.4
사회	항만	수페/PE·깡가렝/PA 항만 현대화, 복구 및 확장	4.4
	스포츠	체육·교육·레저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지원	2.4
	문화	문화 진흥을 위한 알디르 블랑크 문화정책 이행	3.0
도시	지역사회	지역사회 복합센터(CONVIVE) 설립	2.7
	주택	‘미나 카사 미나 비다’ 주택 프로그램(저소득층 공공주택 제공)	76.0
수자원	도시 교통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7.5
	재해 예방–배수	지속가능한 도시 배수 시스템 및 재난위험 관리 지원	4.3
	위생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및 개선 지원	4.0
	빈민가 개발	빈민가 정비 및 개발 지원	2.5
통신	폐기물 관리	공공 폐기물 관리 시스템 지원	4.0
	수자원 정비	자과리베강, 피라냐스–아수, 에이포크 북부 유역과 상수원 통합	7.9
	상수도	상수도 시스템 지원, 확대 또는 개선	3.7
방위	물 공급 확대	담수 및 해수 정수 시스템과 연계 배급망 관리 및 구현	0.6
	방송	방송 서비스 확대 및 개선	0.5
	학교 통신 인프라	학교 프로젝트 확대, 네트워크 및 통신 서비스 개선	0.3
교육·과학·기술	인포비아스	통신 인프라 구축	0.2
	공군	FX-2 프로젝트(전투기 및 시스템 구매)	13.2
	해군	해군 핵 기술 시스템 개발	7.8
	육군	육군 항공 지원 시스템 구축	5.8
보건	기초 교육	기초 교육 인프라 및 보급	2.5
	혁신 및 연구	기술 프로젝트 구현, 복구 및 현대화 지원	1.6
	직업 및 기술 교육	연방 직업·과학·기술 교육 기관 확장 및 현대화 지원	8.3
	고등 교육	연방 고등 교육 기관 지원, 현대화 및 구조 조정	5.5
기타	전문 교육 기관 구조화	전문 교육 기관 구조화	5.8
	1차 진료	1차 진료 및 기본·이동 치과 단위 지원	1.7
	보건산업단지	생산 시설 개발 및 현대화 지원	6.0
기타	원격의료	공공의료시스템(SUS)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 구축 및 개선 (1월 7일)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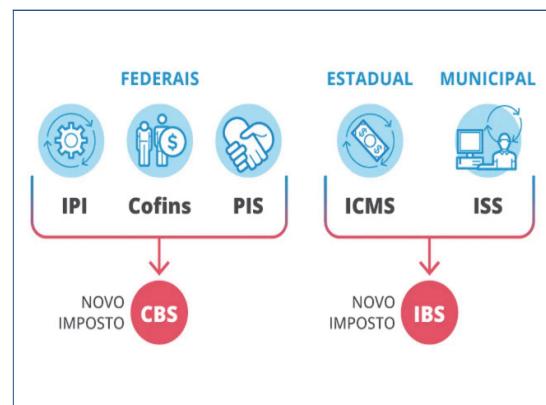
- (제도) 조세 개혁

- (개요) '23년 12월 하원을 통과한 조세 개혁안이 '26년부터 점진적으로 기존 조세 제도 대체
- (주요 내용) 기존의 6개 세금 △ PIS, △ Cofins △ IOF-보험 △ IPI △ ICMS △ ISS를 폐지하고, 연방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 기여금(CBS)과 주·지방 정부의 재화 및 서비스세(IBS)를 신설

개혁안 추진 일정

연도	추진 내용
202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S 0.9%, IBS 0.1% 시범 적용 • CBS 징수 시작 • PIS 및 Cofins 폐지
202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OF-보험 폐지 • IPI 세율 0%로 인하 • 선택적 세금 신설
202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MS, ISS → IBS로 전환 • IBS 세율 점진적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9년) → 20%('30년) → 30%('31년) → 40%('32년) → 100%('32년)
2032년	

〈조세 개혁 방식〉



- (기대 효과)

- ① 세율 인하 : 부가가치세율 기준 34% → 26~28%로 감소 전망
- ② 누진 과세 폐지 : 특정 제품에 세금이 부과된 후 추가 과세 시 기존 세액이 포함된 최종 금액에 누적적으로 과세해오던 방식 폐지하여 최종 세액 축소 전망
- ③ 최종 소비자 세금 징수 : 제품의 생산지가 아닌 최종 소비지에서 세금 징수

- (기타 사항)

- ① 지역개발기금(FNDR) 조성 : 세제 개혁으로 인한 보조금 종료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시정부 기금 조성
- ② 세제 혜택 보상기금(FCBF) : 2023년 5월 31일까지 허가된 유통세 ICMS 인센티브 및 혜택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2032년 사이 약 1,600억 해알(32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
- ③ 마나우스 경제자유구역 보조금 폐지 보상금 : 아마존 지역 경제가 '마나우스 자유무역지역(ZFM)'에 부여된 보조금에 의존해 있었으나 2073년에 이후 보조금이 종료됨에 따라 보완 법률을 통해 '아마존 경제다변화 기금' 제정 추진 예정

□ 규제 현황

- 금융거래세(IOF) 인상 추진(논의 중)
 - (개요) 브라질 정부는 2025년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금융거래세(IOF)를 포함한 금융세 조정으로 추가 세입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의회의 반발로 무산
 - * 연방정부 대통령령으로 인상('25.5.23.) → 의회 대통령령 폐지 법안 통과('25.6.11.)
 - (동향) 의회 반발로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해 금융세 인상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

'25년 브라질 금융거래세 인상 추진 및 무산 내용

구분	기준('25.5.23. 前)	정부 변경안('25.5.23.)	현재('25년 9월)
기업 대출	0.38%+일일(0.0041%) (고정형 신용 최대 1.88%)	0.95%+일일(0.0082%)(고정형 신용 최대 3.95%)	0.38%+일일(0.0041%) (고정형 신용 최대 1.88%)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본 회수	0.38%	3.5%	0.38%
단기 대출(1년 미만)	0%	3.5%	0%
신용카드·직불카드/ 국제 선불카드 결제	3.38%	3.5%	3.38%
외국은행 계좌로 자금 이체	1.1%	3.5%	1.1%
외화 현찰 취득	1.1%	3.5%	1.1%
일반 외환 지급	0.38%	3.5%	0.38%

- (예상 영향) 진출 기업 및 브라질 금융시장 투자 기업들의 기업 운영 비용 증가
 - ① 해외 결제·송금 : 브라질 법인·개인이 한국 등 해외 본사로 송금하거나 해외에서 서비스·게임을 결제할 때 세부담 증가
 - ② 기업 신용거래 : 기업이 은행 대출·운전자금 신용거래를 할 때 부과되는 IOF가 인상될 경우 한국 기업 브라질 현지법인 신용거래 시 자금 조달 비용 증가
 - ③ 외국인 자본 회수 : 외국 기업이 브라질에서 투자 후 배당·자본 회수할 때 세부담 증가
- 디지털세(논의 중)
 - (개요) 브라질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브라질에서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지만 법인세는 다른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의 불합리성, 세원 확보 등의 목적으로 디지털세 논의 중
 - (주요내용) 브라질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 기여금(CSD)'로 명칭되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총 수입의 7% 과세 제도 제안

브라질 디지털 서비스 기여금(CSD) 초안

항목	내용
법안 명칭	• Digital Social Contribution(CSD)
적용 대상(기업)	• 연간 글로벌 매출이 BRL 500 million 이상인 기업들(국내/외 기업 구분 없음)
세율	• 7%
과세 범위	• 디지털 광고 서비스(advertising services) :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는 광고 • 사용자 데이터(user-generated data)의 판매, 이전, 이용 •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중, 브라질 내 사용자 기반이 있는 경우
과세 산정 방식	• 전 세계 수익 중, 브라질 사용자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납부 빈도	• 분기별

- 다국적 기업 최저 법인세('25.1.1.~)
 - (개요) OECD, G20의 국제 거래를 통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협약 실천을 위해
'25년 1월 1일부로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유효세율 15%를 적용
 - (대상) 브라질 내 법인이 있는 다국적 기업 중 연간 글로벌 매출이 7.5억 유로를 초과하며,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유효세율이 15% 미만인 기업
 - (방식) 대상이 되는 기업은 15% 부족분을 순이익에 대한 사회 기여세(CSLL)로 납부

□ ESG

- 탄소 배출 보고 의무·거래 제도 실시(SBCE)('26.1.~)
 - (개요) ①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정하고, ② 배출 초과 기업은 허가된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며,
③ 초과 감축분은 배출허가권 혹은 탄소 크레딧으로 활용 가능하게 하여 탄소 배출 감축 추진
* 24.12.12 공포되었으며, 6년간 단계적으로 운영 준비 및 시행 예정
 - (대상) 연간 배출량이 10,000 tCO₂ 이상인 업체들 보고 의무 부과 및 배출량 규제
 - (방식) 규제시장에서 기업에게 배포되는 배출허가권(CBE), 감축 인증서(CRVE)를 시장에서 거래

탄소 규제 실시 주요 일정

단계	기간(예상)	주요내용
1	'26년 1월~'26년 12월	• 배출 모니터링 의무화 시작(연간 배출 및 제거 보고)
2	'27년 1월~'28년 12월	• 보고 및 모니터링 체제 강화. 배출 제거 및 감축 활동 신고 의무 확대
3	'27년 1월~'28년 12월	• 제1회 국가지정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 NAP) 실시 • 배출허가량(CBE) 배포(무료 할당 및 경매/유료 할당 등) • 배출권 시장 거래 본격화
4	'30년~	• 전 범위의 규제 대상 기업 감축의무 실시(위반 시 벌칙) • 거래 플랫폼 및 중앙등록소 완전 운영(탄소 크레딧 시장 통용)

3. 주요 이슈 Pick

가. 미국 50% 관세 부과 대응 총력

□ 개요

- (배경) 美 트럼프 행정부는 8월 6일부로 브라질 수입품에 적용되던 10% 관세를 50%로 인상
 - 미국의 50% 관세 부과 원인 총 3가지
 - ① 前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
 -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2년 선거 패배 이후 쿠데타 시도 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27년형 선고
 - ② 브라질이 미국 제품에 대한 높은 무역장벽을 적용하여 불공정한 무역
 - ③ 브라질 정부가 미국 국적 SNS 기업에 대한 처벌 및 규제를 부과한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억압이라고 주장
- (영향) 일부 품목은 관세 5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對美 수출품의 36%가 50% 부과 대상
 - 약 700개의 품목이 제외되었으나 농기계, 커피, 소고기 등이 부과 대상

미국 對브라질 관세 50% 부과·면제 주요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관세 50% 부과 품목		관세 50% 면제 품목	
	품목명	對美 수출액(2024년)	품목명	對美 수출액(2024년)
1	커피 원두	1,873	경질 원유	4,310
2	비합금 철강(반가공)	1,699	비합금 선철	1,536
3	합금강(반가공)	517	펄프	1,339
4	휠 로더	471	중질 원유	1,115
5	소고기(냉동)	466	항공기(중형)	1,069
6	설탕(비정제)	420	벙커유	1,008
7	소나무 목재 물딩	351	휘발유	787
8	소고기 가공품	347	항공기(대형)	752
9	동물성 지방(소·양·염소)	346	오렌지주스	631

- (브라질 대응 현황) 경제·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화로 노력
 -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준비 및 수출 기업 피해 완화 정책 실시
 - ① 무역투자 상호 대응법 발효 : 외국이 일방적인 조치로 브라질 국익 침해 시행정부가 상업, 투자, 지식재산권 양보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② '주권국 브라질(Brasil Soberano)' 프로그램 실시 : 수출 기업 및 노동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원 프로그램 실시

주권국 브라질 프로그램 주요 내용

축	분야	주요 내용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보증기금(FGE) 투입하여 피해 기업 대상 저리 대출(60억 달러) 대외무역보증기금(FGCE)(3억 달러), BNDES 투자보증기금(FGI)(4억 달러), Banco do Brasil 보증기금(FGO)(2억 달러) 추가로 공급하여 중소 수출 기업 우선 지원
기업 지원	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로백(Drawback) 제도 수출 증명 기한을 1년 연장하여 미국 수출이 지연되더라도 벌금 및 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수출 기업 세제 환급 특별제도(Reintegra)의 환급률을 확대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대·중견기업(0.1%), 중소기업(3%) → (변경) 대·중견기업(3.1%), 중소기업(6%) Reintegra : 수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납부한 일부 세금을 세액 공제로 환급 국세청은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 2개월 세금 납부 연기 허용
	공공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주·지자체가 학교, 병원 등의 공공기관 식품 조달 시 미국 관세 영향을 받는 자국 농식품을 구매할 경우 절차 간소화 및 시장 평균 가격 적용
노동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고용감독위원회(Camara Nacional de Acompanhamento do Emprego)를 신설하여 관세 피해 기업의 고용 수준 모니터링,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 제안
다자주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 기업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무역협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 중) UAE, 캐나다 / (논의 중) 인도, 베트남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기회 요인) 브라질 정부·기업의 거래선 및 시장 다변화 추진 시 신규 수출 기회 및 협력 기회 증대 가능
 - (리스크) 브라질 정부의 对미 보복조치가 모든 국가 대상으로 확대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투자 진출 악영향 가능성 존재

나. 자국 산업 육성·보호를 위한 무역장벽 강화

□ 개요

- (배경) 브라질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역사적으로 높은 무역장벽 유지
 -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3년 브라질 평균 최혜국대우 관세율(MFN)은 약 13.5%로 세계 평균 5~6%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의 관세
 - ANVISA(식품·의약품·의료기기), INMETRO(전자기기) 인증과 공공 조달 외국 기업 참여 제한, 엄격한 국산화 의무 등의 비관세 장벽도 다수
- (현황) 중국 저가 제품의 유입, 美 관세 부과로 인한 산업계의 우려로 반덤핑 조사 급증
 - 브라질은 30개국 대상, 총 84개 수입 규제 적용 중('25.9.10. 기준)
 - '24년 반덤핑 조사 요청 건수는 106건으로 5년 내 최고치 기록



- (전망) 美 관세 부과로 인한 자국 산업 보호 기조 강화로 수입 규제 확대 예상
 - 특히 중국이 최대 교역국 및 우방국임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 확대 중
 - * '25년 신규로 발표된 수입 규제 13건 중 9건, 조사 중인 24건 중 18건이 중국 대상
-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對한국 반덤핑 조치가 추가될 우려 존재
 - 브라질이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상품은 총 5건으로 철강/금속 2건, 플라스틱/고무 2건, 섬유/의류 1건

한국에 부과된 반덤핑 규제

HS코드	품목명	적용기간
4002.59.00	니트릴 고무	2018.8.13.~2028.8.9.
4011.20.90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2021.3.22.~2026.3.22.
7225.19.00 7226.19.00	압연실리콘철강	2025.7.10.~2030.7.11.
5402.31.11 5402.31.19 5402.45.20	나일론사	2024.12.23. 이후 재심 진행 중
7208.51.00 7208.52.00	평판압연제품(후판)	2024.10.2. 이후 재심 진행 중

자료: 브라질 산업부(MDIC)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5
2. 유망 산업	54
3. 협력 기회	68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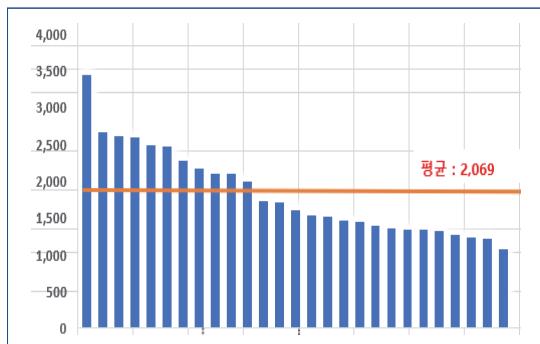
- (특징)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 제조업 강국, 낮은 무역의존도
- (전략적 가치) 수출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글로벌사우스 핵심국가
- (진출 유망) 제조업 중간재(자동차·항공기 부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에너지 시장 유망

가. 시장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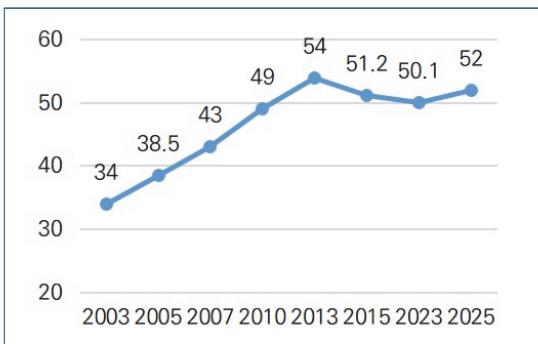
□ (소비) 중남미 최대 소비시장이지만 지역·소득별 다양한 소비 패턴

- (특징) 브라질은 2억 1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중남미 최대 내수시장이나 지역별, 소득별로 소비 패턴이 상이
 - 대도시(상파울루, 리우 등)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제품과 디지털 소비가 확대
 - 북부·북동부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가격 민감형 소비가 주류
- (전망) 브라질 중산층은 장기 추세선상 증가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52% 이상을 차지하여 소비 증가 전망

〈브라질 주별 가구당 월 소득 평균(헤알)〉



〈브라질 중산층 가구 비율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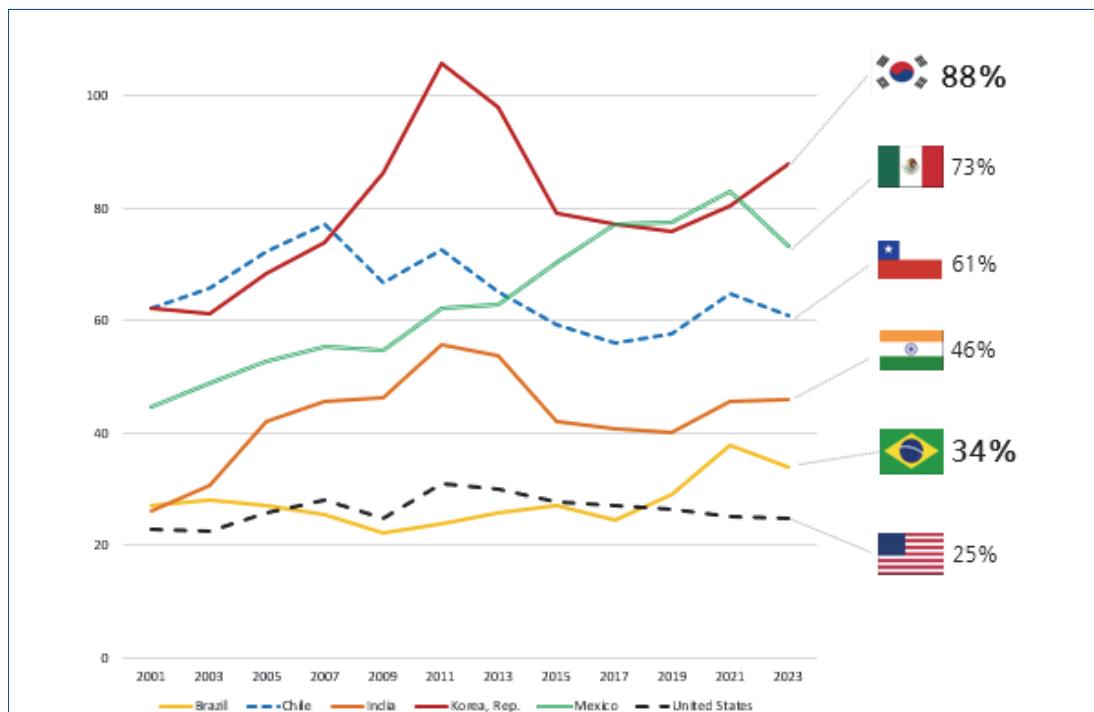
□ (생산) 1~3차까지 넓은 산업 스펙트럼과 중남미 최대 제조업 국가

- (특징) 세계적 농산물 수출국이자 항공기·자동차·기계 등 고부가 제조업을 보유
 - (1차 산업) 대두, 설탕, 옥수수, 커피, 닭고기, 소고기 등 주요 품목에서 세계 1~2위권 생산 및 수출
 - (2차 산업) 남동부(상파울루, 미나스제라이스) 중심으로 자동차, 철강, 화학, 항공기(Embraer) 제조 클러스터 형성
 - (3차 산업) 금융, ICT, 물류,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도시 집중화 및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 중
- (전망) 브라질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NIB), 산업 인프라 투자 정책(Novo PAC) 등으로 지속적인 중남미 최대 제조업 국가 지위 유지 전망

□ (교역) 수출입 비중이 낮은 내수 중심 경제

- (특징) 역사적으로 수입을 대체하고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는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이로 인해 내수 중심 경제 구축
 - 브라질의 무역의존도(GDP 대비 수출입 비중)는 34%로 기타 신흥국 대비 낮음

〈브라질 무역의존도 비교〉



자료: World Bank

□ 주요 인증

- 국가위생감시국(ANVISA, 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 인증
 - (개요) 브라질 보건부 산하의 규제기관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
 - (대상) ANVISA는 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건강과 직결되는 품목에 대한 안정성과 품질을 관리하며 감독
 - (분류) ANVISA는 제품의 성분, 사용 목적,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며, 각 위험도는 인증 방식 및 요구 서류가 상이

Anvisa 인증 분류표

산업군	품목군	위험도	위험 수준	제품 등록 방법	제품 예시
뷰티	화장품	Grau I	저위험	신고	일반 스킨/로션, 립스틱, 샴푸
		Grau II	고위험	일반 등록	기능성·치료용 화장품
바이오·의료	의료기기	Class I ~ Class II	저위험~중간위험	단순 신고	체온계, 붕대, 치기자재, 일반 진단기기
		Class III	고위험	약식 등록	임플란트, 인공관절, 심장 모니터링 기기
		Class IV	최고위험	정식 등록	인공 심장 판막, 혈액 정화기
	의약품	종류에 따라 위험 수준 분류		등록	일반~시밀러 의약품

- (GMP 공장 실사) GMP 공장 실사는 ANVISA의 담당자가 직접 수출국의 공장을 방문하여 주요 사항을 점검

* GMP는 모든 의약품, 의료기기는 Class III, Class IV가 대상

GMP 주요 점검 사항

점검 사항	세부 내용
품질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보증 및 관리 시스템의 명확한 구축 여부 • 제조 기록, 변경 관리 등의 문서화 체계 • 내부 감사 및 벤더 관리 시스템
제품 제조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공정 밸리데이션 수행 여부 • 주요 제조 설비 및 자동화 시스템의 관리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한 공정 구분 및 세척 절차 • 생산 시설 유지·보수 기록
청정 구역 및 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균 및 청정 구역의 등급 설정 및 관리 실태 • 온도, 습도, 미생물 관리 등의 작업장 환경 모니터링 수행 여부
위생 및 원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입고, 보관 절차 및 선입선출 시스템 • 원료·자재의 식별 및 분리 방법 관리 • 불량품 관리 • 작업자 보호복 착용 기준 및 개인 위생

점검 사항	세부 내용
시험 및 검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 및 완제품의 시험 분석, 안정성 시험 등 수행 여부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수행 여부 시험 결과서 및 이력 관리 시스템
문서 및 기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치 기록의 작성과 보관 이상 발생의 예방 및 이상 발생 시 보고 체계 일관된 기록 관리 시스템 존재 여부
교육 및 인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 내 담당자의 GMP 교육 이수 여부 교육 일정, 자료, 결과 등의 기록 보관 여부
출하 및 유통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하 승인 절차의 명확성 브라질로 수출되는 제품의 출하 승인 및 최종 검토 책임자 지정 여부

- 국가계량품질기술원(INMETRO) 인증
 - (개요) 브라질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산업 기술, 품질 및 안전 기준 관리를 담당
 - (대상) 산업 제품 전반 중 안정성, 품질 요건이 필요한 모든 제품군을 대상
 - (분류) 인증은 제품에 따라 강제 및 자율로 운영

INMETRO 인증 분류표

구분	주요 내용
강제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으로 지정된 제품군에 대해 반드시 인증 획득 필요. 제품 포장에 INMETRO 로고 부착
자율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의무는 아니지만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 자율로 인증 신청 가능. 시장 신뢰성 확보에 유리

- (절차) INMETRO가 지정한 시험기관(OCP)에서 제품 테스트가 요구되며, 제품에 따라 1~5년 인증서 유효기간이 있으며, 제품에 따라 시장 감시 및 주기적 사후관리가 요구됨
- 국가통신국(ANATEL) 인증
 - (개요) 브라질 내 통신기기·무선장비 관련 제품의 규제 및 인증을 담당하는 독립 정부 기관
 - (대상) 유·무선 통신기기 전반, 무선 기능을 가진 모든 전자장비(RF 사용 시), IoT 기기, 산업용 제어장비 등도 기능에 따라 대상에 포함 가능
 - (분류)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모듈 A~C로 구분하여 인증 절차 및 요구 서류 상이

INMETRO 인증 분류표

구분	주요 내용
모듈 A	단순 제품, 저위험. 공장 심사 불필요
모듈 B	중위험 제품. 시험기관 테스트+기술문서 제출
모듈 C	고위험 제품. 시험+공장 심사+정기적 사후관리

- (절차) 시험기관에서 테스트가 요구되며, 통신기기에 따라 SAR 테스트, EMC, RF 테스트 등이 요구될 수 있음(타국 인증으로 대체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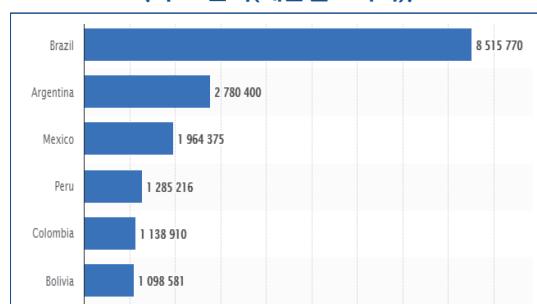
INMETRO·ANATEL 인증 비교표

항목	INMETRO	ANATEL
인증 대상	산업 제품 전반(전기전자 등)	통신·무선기기 전반
인증 형태	강제+자율증	강제
인증 마크	INMETRO 로고	ANATEL 마크
인증 절차	시험+서류+사후관리	시험+모듈에 따라 공장 심사 포함
인증 주체	산업기술안전기관	통신규제기관
브라질 내 대리인 필요 여부	필요	필요

□ 브라질 시장의 전략적 가치

- (수출 관점) 중남미 최대 경제대국
 - 브라질은 국가 면적(8,514천m²), GDP(2.1조 달러), 인구(2.12억), 외국인직접투자(659억 달러) 등 거시지표 측면에서 타 중남미 국가와 비교 불가한 규모('24년 세계은행 자료)

〈국토 면적(제곱킬로미터)〉



〈인구 수(백만 명)〉



〈GDP(십억 달러)〉



〈해외직접투자(백만 달러)〉



- (공급망 관점) 글로벌 '원자재 허브'
 - 브라질은 농산물, 광물 등 모든 원자재가 풍부한 '원자재 허브'
 - (농업) 대두 및 옥수수, 커피, 사탕수수, 목재 등을 중심으로 대두, 옥수수, 커피, 사탕수수 등 농산물 생산·수출 세계 1위
 - (광물) 니오븀(1위), 철광석(2위), 흑연(4위) 등 핵심 광물 다수 보유

글로벌 대두 생산량			(단위: 백만 톤)			브라질 광물 매장·생산량					
순위	국가명	2022년/ 2023년	2023년/ 2024년	2024년/ 2025년		구분	매장량 (천 톤)	세계 순위	생산량 (천 톤)	세계 순위	비중 (%)
1	브라질	162	153	169		니오븀	16,000	1	71	1	89.8
2	미국	116.22	113.34	124.81		철광석	34,000	2	410	2	15.8
3	아르헨티나	25	48.10	51		흑연	74,000	2	87	4	6.7
4	중국	20.28	20.84	20.70		망간	270,000	3	400	6	2.0
5	인도	12.41	11.88	12.80		니켈	16,000	3	83	8	2.5
전 세계		378.70	394.75	429.20		회토류	21,000	3	80	10	0.03
						리튬	250	8	2	5	1.7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 (교역액) 브라질의 '24년 교역액은 5,99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
- (수출) 브라질의 '24년 수출액은 3,370억 달러로 전년 대비 0.8% 감소
- (수입) 브라질의 '24년 수입액은 2,6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9.2% 증가
- (무역수지) '24년 무역수지는 약 74억 흑자를 기록, 전년 대비 25.3% 감소

브라질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역외수출	340	1.7	337	-0.8	228	0.5
역외수입	241	-11.7	263	9.2	185	6.9
무역수지	99	60.8	74	-25.3	43	-20.4
총 교역	581	-4.3	600	3.3	413	3.3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24년 수출액 비중별 주요 수출국은 중국(28%), 미국(12.1%), 아르헨티나(4.1%)
 - 2008년까지 미국이 1위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2009년부터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브라질의 1위 수출 대상국이 중국으로 변경

2022~2025년 브라질 5대 수출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8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중국	89,850	26.8	104,245	30.7	94,437	28.0	67,044	29.4
2	미국	37,719	11.3	37,150	10.9	40,683	12.1	26,576	11.8
3	아르헨티나	15,356	4.6	16,715	4.9	13,777	4.1	12,411	5.3
4	네덜란드	11,928	3.6	12,112	3.6	11,668	3.5	7,455	3.1
5	스페인	9,754	2.9	7,856	2.3	9,964	3.0	6,124	2.6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 품목) '24년 기준 주요 수출 품목은 광물성 연료(27), 대두(12), 광물정광(26) 등의 원자재이며, 상위 10대 품목이 총 수출량의 54.6% 차지
 - 상위 10대 품목 중 원자재가 8개 품목으로 브라질은 글로벌 원자재 허브

브라질 10대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8월)	
	HS코드	품목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27	광물성 연료	56,853	17.0	55,135	16.2	57,233	17.0	32,554	16.4
2	12	대두	47,148	14.1	54,025	15.9	43,839	12.9	30,960	15.6
3	26	광물정광	32,548	9.7	34,959	10.3	35,052	10.4	18,449	9.3
4	02	육류	23,996	7.2	22,005	6.5	24,549	7.3	15,659	7.9
5	17	당류설탕	11,224	3.4	15,979	4.7	18,862	5.6	7,499	3.8
6	84	기계류	12,437	3.7	14,082	4.1	12,978	3.8	7,109	3.6
7	72	철강	16,739	5.0	14,626	4.3	11,908	3.5	7,242	3.7
8	8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2,389	3.7	12,624	3.7	11,893	3.5	8,691	4.4
9	09	커피	9,004	2.7	7,777	2.3	11,850	3.5	8,708	4.4
10	23	사료	11,156	3.3	12,504	3.7	10,698	3.2	5,268	2.7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24년 수입액 비중별 주요 수입국은 중국(24.2%), 미국(15.7%), 독일(5.2%)
– 2011년까지 미국이 1위 수입 대상국이었으나, 2012년부터 중국이 1위

2022~2025년 브라질 5대 수입국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8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중국	51,713	19.0	53,179	22.1	63,637	24.2	47,119	25.4
2	미국	60,737	22.3	38,412	15.9	41,395	15.7	29,970	16.2
3	독일	12,804	4.7	13,145	5.5	13,776	5.2	9,596	5.4
4	아르헨티나	13,100	4.8	11,998	5.0	13,577	5.2	8,298	4.3
5	러시아	7,861	2.9	10,005	4.2	10,965	4.2	7,027	3.8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 품목) '24년 기준 주요 수입 품목은 기계류(84), 석탄석유(27), 전기전자(85) 등 원자재 및 제조업 중간재를 다양하게 수입하고 있으며, 상위 10대 품목이 총 수입량의 74.5% 차지

브라질 10대 수입 품목

순위	품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8월)	
	HS코드	품목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84	기계류	33,884	12.4	34,654	14.4	41,117	15.6	27,083	16.8
2	27	석탄석유	49,564	18.2	36,761	15.3	34,331	13.1	17,072	10.6
3	85	전기전자	31,582	11.6	38,672	16.1	30,995	11.8	17,761	11.0
4	87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6,412	6.0	18,581	7.7	23,050	8.8	13,458	8.4
5	29	유기화학물	18,258	6.7	13,542	5.6	13,913	5.3	8,921	5.5
6	31	비료	24,786	9.1	14,652	6.1	13,582	5.2	8,154	5.1
7	30	면역물품	9,918	3.6	10,977	4.6	12,333	4.7	8,323	5.2
8	39	플라스틱	10,275	3.8	9,223	3.8	11,021	4.2	6,485	4.0
9	90	광학정밀기기	6,896	2.5	7,465	3.1	8,423	3.2	5,397	3.4
10	38	기타 화학	9,533	3.5	7,132	3.0	7,449	2.8	4,429	2.8

자료: 한국무역협회

□ 對韓 교역 동향

- '24년 기준, 브라질은 한국의 제22위 교역대상국이자 중남미 내 제2교역국
 - 한국과 브라질의 교역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20억 달러 규모
 - 한국의 對브라질 수출액은 중남미 전체 수출액의 18.2%에 해당

한-브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8월(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수출(한 → 브)	43	-12.7	53	20.9	35	-3.8
수입(브 → 한)	67	-15.2	73	8.5	44	-0.7
무역수지	-24	17.2	-20	16.6	-9	-12.5
총 교역	110	-14.7	126	14.5	79	-1.3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 교역 품목

- (수출) 한국의 對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의약품 등

한국의 對브라질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8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5,251	20.9		총 수출	3,481	-3.8
1	집적회로반도체	1,277	49.6	1	집적회로반도체	636	-30.4
2	자동차 부품	648	6.6	2	자동차 부품	415	-7.8
3	합성수지	346	2.8	3	합성수지	204	-15.3
4	의약품	271	23.8	4	선박	201	1,432,142
5	원동기	252	13.2	5	원동기	179	4.9
6	농약	219	26.1	6	열연강판	175	6,932.8
7	아연도강판	148	35.5	7	의약품	146	-12.6
8	의료용 전자기기	95	-2.4	8	농약	123	-24.9
9	평판 디스플레이	89	41.5	9	냉연강판	95	223.0
10	항공기 부품	76	56.4	10	아연도강판	91	-13.0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 한국의 對브라질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철광, 사료, 박류 등의 원자재

한국의 브라질 10대 수입 품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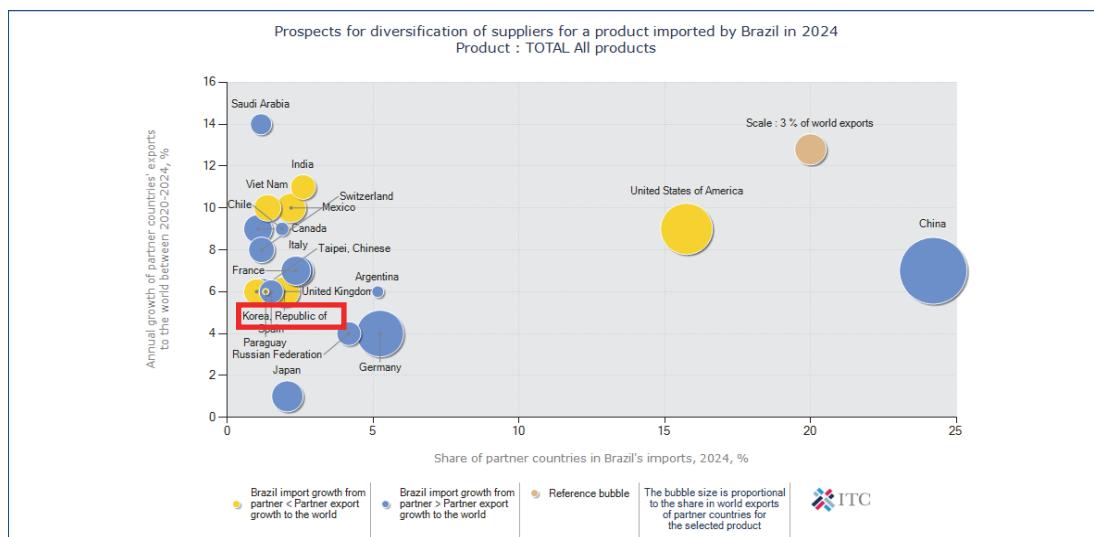
2024년				2025년 8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	7,299	8.5		총 수입	4,393	-0.7
1	원유	1,987	26.7	1	원유	1,555	23.9
2	철광	1,329	22.1	2	철광	702	-20.7
3	사료	776	-23.9	3	박류	397	-12.0
4	박류	663	6.7	4	커피류	328	79.2
5	가금육류	354	-16.3	5	가금육류	216	-5.9
6	합금철	342	24.6	6	합금철	206	-3.8
7	커피류	286	25.5	7	펄프	192	8.9
8	펄프	255	-5.8	8	두류	157	6.8
9	두류	251	-30.5	9	철구조물	130	0.0
10	철구조물	169	0.0	10	사료	101	-68.0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브라질 내 수입시장 점유율

- 한국은 '24년 기준 브라질의 11위 교역 대상국으로 브라질 전체 수입시장에서 1.9~2.1% 점유율 유지 중
- 최근 5년간('20~'25) 브라질 수입시장에서의 증가율은 2%로 한국의 전 세계 수출액 증가율(2.9%) 대비 낮은 추세

〈브라질의 수입 대상국 분석도〉



자료: Trade map('25.9.)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
 - 브라질의 對중국 수입은 '24년 기준 약 636억 달러로 브라질 전체 수입의 24.2%를 차지하며 1위 수입국
 - 주요 수입 품목은 수입액 기준 HS code 8703(자동차)이고, 브라질 수입의 약 37.8% 차지하며, '24년 기준 약 31억 달러를 수입
- 미국
 - 브라질의 對미국 수입은 '24년 기준 약 414억 달러로 브라질 전체 수입의 15.7%를 차지하며 2위 수입국
 - 주요 수입 품목은 수입액 기준 HS code 8411(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 및 가스터빈)이고, 브라질 수입의 약 72.9% 차지하며, '24년 기준 약 62억 달러를 수입
- 독일
 - 브라질의 對독일 수입은 '24년 기준 약 138억 달러로 브라질 전체 수입의 5.2%를 차지하며 3위 수입국
 - 주요 수입 품목은 수입액 기준 HS code 3002(인간 및 동물 혈청, 백신 등)이고, 브라질 수입의 약 15.3% 차지하며, '24년 기준 약 9억 달러를 수입
- 일본
 - 브라질의 對일본 수입은 '24년 기준 약 54억 달러로 브라질 전체 수입의 2.1%를 차지하며 10위 수입국
 - 주요 수입 품목은 수입액 기준 HS code 8708(자동차 부품 및 악세서리)이고, 브라질 수입의 약 12.3% 차지하며, '24년 기준 약 10억 달러를 수입

□ 브라질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자동차 부품 진출 전략 : 국내 기업 T사(현지 G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중간 유통업자를 생략하고 최종 구매 기업과의 직거래를 추진함으로써 현지 판매 가격 인하
- 필수 인증 : 해당 사항 없음
- 성약 소요 기간 : 1년
- 바이어 발굴 경로 : 기존 바이어로부터 현지에서 납품받는 최종 구매 기업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중간 유통업자에 의해 우리 기업의 영업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는 문제점 개선
 - 국내 기업-최종 구매업자 직접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생산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한 신규 납품 계획 수립



성공 사례로 보는 화장품 진출 전략 : 국내 기업 B사(현지 M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화장품 브랜드 안에서 다양한 하위 브랜드의 제품을 출시하여 폭 넓은 소비 계층 확보
- 필수 인증 : ANVISA(브라질 위생감시국) 인증
- 성약 소요 기간 : 2년
- 바이어 발굴 경로 :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화장품 구매 희망 바이어를 소개받아 국내 기업과 매칭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유통 단계가 많아질수록 최종 가격이 올라가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인증 취득 경험이 있는 복수의 잠재 바이어 중 유통사가 아닌 리테일러와의 매칭을 목적으로 바이어 발굴에 초점
 - 가격과 인증 취득 등의 문제로 초기 시장 진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바이어를 시장 수요에 따라 발굴하여, 다년간의 교신 지원 끝에 수출 성약 체결



성공 사례로 보는 식품 진출 전략 : 국내 기업 W사(현지 M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까다로운 인증 취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지 시장에서의 상품 신뢰도 확보
- 필수 인증 : MAPA(브라질 농축산식품부), ANVISA(브라질 위생감시국) 인증
- 성약 소요 기간 : 1년
- 바이어 발굴 경로 :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아시아 식품 전문 유통 바이어를 발굴하여 국내 기업과 매칭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MAPA, ANVISA 등 현지 인증 취득 및 제품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공관과의 서류 절차 지원 협업
 - 시장 진입 난이도가 높은 품목을 인증 취득 단계부터 지원하여,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 기회 모색

□ 수입 규제

- (현황) 브라질은 30개국 대상, 총 84개 수입 규제 적용 중('25.9.10 기준)
 - 총 84개 수입 규제 중 반덤핑관세 80개, 상계관세 4개
 - 수입 규제 중인 주요 국가는 중국(54개), 미국(13개), 인도(8개), 독일(7개) 등
 - 주요 분야는 철강/금속(24개), 화학(19개), 플라스틱/고무(16개), 섬유/의류(4개)
- (전망) 美 관세 부과로 인한 자국 산업 보호 기조 강화로 수입 규제 확대 예상
 - 특히 중국이 최대 교역국 및 우방국임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 확대 중
 - * '25년 신규로 발표된 수입 규제 13건 중 9건, 조사 중인 24건 중 18건이 중국 대상

- **对한국 반덤핑 규제**
 - 브라질이 반덤핑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상품은 총 5건으로 철강/금속 2건, 플라스틱/고무 2건, 섬유/의류 1건

한국에 부과된 반덤핑 규제

HS코드	품목명	적용기간 (재심의 경우 재심 종료 시까지 지속 적용)
4002.59.00	나트릴 고무(NBR)	2018.8.13.~2028.8.9.
4011.20.90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Pneumatic tires for trucks and buses)	2021.3.22.~2026.3.22.
7225.19.00	압연실리콘철강	
7226.19.00	(Flat-rolled product silicon steel)	2025.7.10.~2030.7.11.
5402.31.11		
5402.31.19	나일론사	
5402.45.20	(Nylon synthetic filament yarn)	2024.12.23. 이후 재심 진행 중
7208.51.00	평판압연제품(후판)	
7208.52.00	(Heavy Plate Steel)	2024.10.2. 이후 재심 진행 중

자료: 브라질 산업부(MDIC)

다. 산업

□ 브라질 GDP 구성

- 브라질의 GDP에서 각 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4년 기준 1차 산업(7.0%), 2차 산업(27.1%), 3차 산업(65.9%)'
 - 브라질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이나 내부 GDP 비중에서는 2·3차 산업이 93% 차지
 - 주별 대도시 중심으로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으며, 상파울루를 포함한 남동부 지역에는 제조업 및 항공기, ICT 등의 첨단산업이 집중되어 있음

최근 3년간 브라질의 산업별 GDP 비중

산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차 산업	7.1	7.2	7.0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7.1	7.2	7.0
2차 산업	28.0	26.5	24.7
광업	5.8	5.9	6.0
제조업	16.0	17.7	14.6
전기·가스 송배전 및 수자원 관리	2.6	5.4	5.5
건설업	3.6	4.4	4.8
3차 산업	64.9	66.3	68.3
도·소매업	13.6	13.9	14.1
운송·창고업	3.4	5.6	5.9
정보통신업	3.5	7.2	7.7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22.3	16.1	15.9
기타 서비스(공공행정 외)	22.1	22.5	22.1
국내총생산	100	100	100

자료: ECLAC

□ 1차 산업(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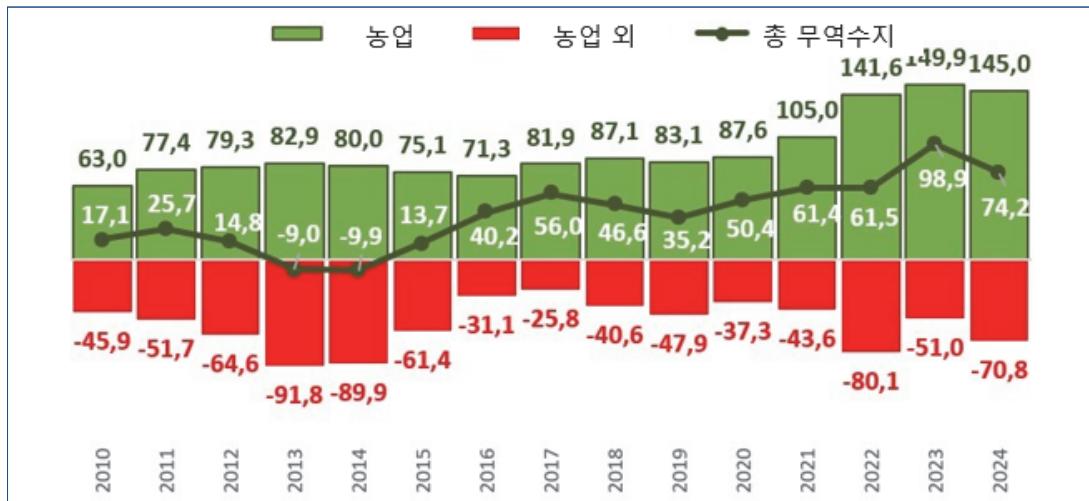
- (개요) 브라질의 농업은 전체 GDP에서 7%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생산량의 약 45~50%가 수출되며, ‘글로벌 식량창고’로 불릴 만큼 전 세계 농산물 공급에 큰 부분 차지

〈브라질 주요 농산물 생산·수출 순위(2024년)〉

구분	대두	커피	오렌지 주스	설탕	소고기	닭고기	옥수수	면화	돼지고기
생산	글로벌 1위	글로벌 1위	글로벌 1위	글로벌 1위	글로벌 2위	글로벌 2위	글로벌 3위	글로벌 3위	글로벌 4위
글로벌 생산량 점유율	40%	38%	70%	23%	19%	15%	10%	14%	4%
수출	글로벌 1위	글로벌 2위	글로벌 1위	글로벌 4위					
글로벌 수출량 점유율	58%	31%	71%	52%	28%	36%	24%	30%	14%

- (동향) 브라질의 생산, 수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른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를 농산물 무역수지 흑자가 상쇄하여 총 무역수지 흑자 기여

〈브라질 농업 및 이외 산업 무역수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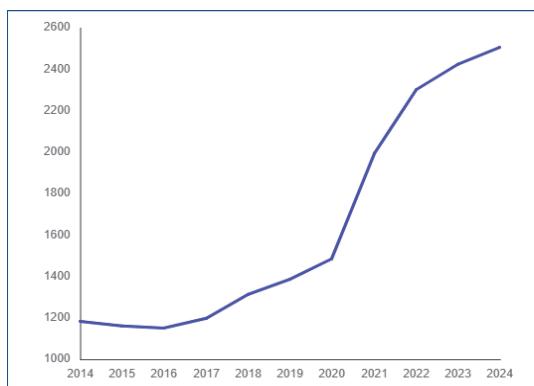


자료: CNA

□ 2차 산업(제조업)

- (개요)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제조업 국가로 항공우주,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식품가공, 제약 등 산업 스펙트럼이 넓고, 내수와 수출을 동시에 겨냥한 복합 구조 형성
- (동향) 제조업 GDP는 증가하고 있으나 타 산업 대비 성장이 저조하여 총 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낮은 상황
 - 1985년 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48%로 정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여 25% 수준

〈브라질 제조업 명목GDP(십억 헤알)〉



〈브라질 총 GDP 중 제조업 비중(%)〉



자료: CNI

□ 3차 산업(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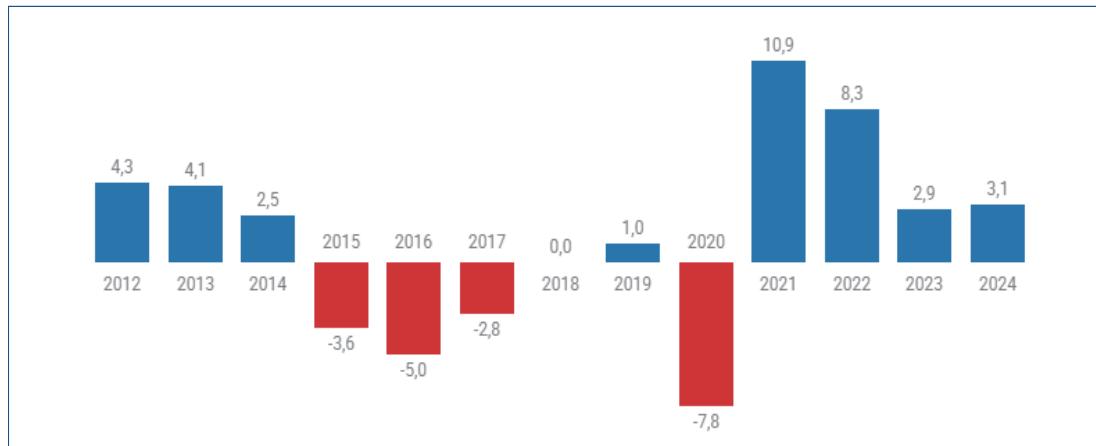
- (개요) 국내총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비중이 큰 산업 부문으로 도시화율 약 87%에 기반한 강력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보유
 - 도소매, 금융, 보험, 정보통신, 물류, 관광, 교육, 의료, 부동산 등 다양한 하위 산업으로 구성

브라질 주요 서비스업 분야 특징

분야	특징
금융·보험·부동산	브라질 최대 은행(Banco do Brasil, Itaú 등), 디지털은행(Nubank), 대형 부동산 시장 형성
도·소매업	전국에 대형 유통망(Carrefour, GPA 등)과 전통시장 혼재. 고용 비중 가장 큼
운송·물류	육상 운송(트럭 중심), 항만물류, 항공운송 발달. 전자상거래 성장과 함께 물류 투자 확대
ICT	브라질 최대 스타트업 시장 보유. 핀테크, 클라우드, SaaS 등 성장세
관광·숙박·문화	리우, 이과수, 아마존 등 세계적 관광지 다수. MICE 및 생태관광 육성 중
교육·의료	사립 병원 및 교육기관 중심 성장. 공공의료(보건통합시스템, SUS)와 민간 공존

- (동향) '21년 이후 플러스 성장을 유지 중이지만 성장률을 감소 추세
 - '24년 서비스 부문 중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산업은 ICT(6.2%)

〈브라질 서비스업 성장률 추이〉



자료: PODER360

□ 기간산업 동향

- 브라질 기간산업은 에너지·자원 산업 성장, 내수 제조·건설 회복, 디지털·물류 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진행 중
 - 석유·가스, 재생에너지, 광업 등 수출·투자 견인 업종이 호조세를 보이며 국가 재정과 무역수지 개선 주도
 - 자동차·건설·제조업 등 내수 경기 민감업종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효과가 점진적으로 반영되며 완만한 개선 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나 철강 등 일부 업종은 글로벌 가격·수입 경쟁 압력 지속

브라질 주요 기간산업 동향

산업	증오도	최근 동향 (호조/부진)	핵심 요인	관련 지표
석유·가스	수출·경상수지 및 재정 기여 핵심	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해 유전 생산 증가 • 대중국·아시아 수출 비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3분기 원유 수출 81.4만b/d(전년비 +36%)
전력·에너지	제조·서비스 전반의 비용·안정성 좌우	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회복 • 대규모 풍·태양광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8월 풍력·태양광 비중 34%
광업	무역수지·인프라 투자 견인, 지역 고용 핵심	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프로젝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 '28년 640억 달러 투자 전망
자동차	제조업 고용·투자 비중 큼, 내수 수출 양축	완만한 호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하락 • 수출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9월 생산 24만 대 (전년 동월 +5.8%)
철강	기초소재·건설·자동차 연계	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발 저가 수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조강생산량 3,380만 톤 (세계 9위)
건설·시멘트	내수경기·인프라 투자 연계, 고용 비중 큼	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하락 효과 점진 • 공공·민간 프로젝트는 진행되나 기업 심리는 신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1분기 건설업체 신뢰지수 평균 48.4(50 하회)
물류	수출입 물동량·원자재 흐름의 관문	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밸크 견조 • TUP(민간 터미널)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상반기 물동량 6.54억 톤 (사상 최대)
통신	디지털 인프라·제조·서비스 생산성 지렛대	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확대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2분기 5G 보급률 63.7% (2027년 목표 초과)

□ (주요 기간산업-①) 자동차

- (개요) 브라질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24년 기준 GDP의 4.0%, 제조업 GDP의 22%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 2024년 기준 브라질 자동차 산업은 26개의 제조사, 508개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4,215개 대리점이 있음
- (생산) '24년 기준 브라질 자동차 산업은 생산량 기준 세계 8위
 - 침체되었던 생산량이 '22년부터 회복('22년) 238만 대 → ('23년) 234만 대 → ('24년) 256만 대)

- (판매) '24년 기준 브라질 자동차 판매량 기준 세계 6위
 - 코로나19 이후 판매량 회복세('22년) 210만 대 → ('23년) 232만 대 → ('24년) 263만 대)
- (수출입) 2018년부터 브라질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수출을 초과하여 무역 적자 증가
 - '24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역사상 최고치인 130억 달러 기록
 - (수출)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의 자동차 부품 수출 대상국은 아르헨티나가 34.6%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미국, 3위는 멕시코
 - (수입) 수입 대상국은 중국이 18.5%로 1위, 2위는 미국, 3위는 독일

□ (주요 기간산업-②) 철강

- (개요) 브라질 철강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며, 연간 1,000억 헤알(182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 창출
 - 브라질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 중의 하나로, 16세기에 시작되어 1941년 국가 철강회사(CSN) 설립을 통해 현대화
- (생산) 브라질 철강협회(Aco Brasil)에 따르면 '24년 기준 브라질은 세계 철강 생산량 9위를 기록, 중남미 전체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

글로벌 주요 철강 생산국 순위

(단위: 백만 톤, %)

순위	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점유율	'23/'24년 증감률
	전세계	1,883.3	1,962.5	1,889.2	1,904.1	1,884.6	-	-
1	중국	1,064.8	1,035.2	1,028.9	1,028.9	1,005.1	53.3	6.42
2	인도	100.3	118.2	125.4	140.8	149.4	7.9	0.95
3	일본	83.2	96.3	89.2	87.0	84.0	4.5	-3.10
4	미국	72.7	85.8	80.5	81.4	79.5	4.2	-2.33
5	러시아	71.6	77.0	71.5	76.0	71.0	3.8	2.22
6	한국	67.1	70.4	65.8	66.7	63.6	3.4	-4.62
7	독일	35.7	40.2	36.9	35.4	37.2	2.0	1.07
8	터키	35.8	40.4	35.1	33.7	36.9	2.0	0.59
9	브라질	31.4	36.1	34.1	32.0	33.9	1.8	-0.30
10	이란	29	28.3	30.6	30.7	31.4	1.7	2.28

자료: Aco Brasil,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중남미 철강 생산량

(단위: 천 톤, %)

순위	국가	2024년(1~6월)	2023년(1~6월)	'24/'25년 증감률	점유율
	중남미	27,969	27,568	-1.4	100
1	브라질	16,419	16,512	0.6	59.9
2	멕시코	7,118	6,781	-4.7	24.6
3	아르헨티나	1,877	1,935	3.1	7.0
4	페루	802	814	1.6	3.0
5	콜롬비아	691	707	2.3	2.6
6	에콰도르	264	267	1.4	1.0
7	칠레	498	245	-50.8	0.9
8	과테말라	127	129	2.2	0.5
9	쿠바	89	89	0.6	0.3
10	엘살바도르	41	42	2.7	0.2

자료: Aco Brasil,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 (판매) '24년, 브라질 국내 판매량은 2,128만 톤, 전년 대비 8.9% 증가
 - 분야별로는 건축이 383만 톤으로 1위, 자동차 부품 2위, 자동차 제조 3위 기록

브라질 산업별 철강 판매 현황(2020~2024년)

(단위: 천 톤, %)

순위	분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3/'24년 증감률
	합계	19,462	22,303	20,326	19,537	21,279	8.89
1	건축	3,987	4,205	4,066	3,739	3,831	2.46
2	자동차 부품	1,794	2,422	2,146	2,065	2,290	10.89
3	자동차 제조	1,051	1,365	1,186	1,185	1,372	15.77
4	인발선재	884	1,068	1,005	912	1,012	10.96
5	소구경 용접 파이프 및 튜브	749	933	780	761	744	-2.23
6	재압연 및 가공	475	595	532	506	699	38.14
7	가정·상업용 가전제품	605	666	533	640	675	5.47
8	산업용 기계 및 장비	463	618	610	545	485	-11.01
9	전기·전자 기계 및 장비	407	501	416	414	474	14.49
10	농업 및 도로용 장비	466	772	702	527	419	-20.49

순위	분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3/'24년 증감률
11	포장 및 컨테이너	420	458	379	355	367	3.38
12	볼트 및 리벳(자동차 제조 제외)	223	285	220	212	214	0.94
13	밀폐형 단조	113	169	179	130	191	46.92
14	대구경 용접 파이프 및 튜브	133	185	221	65	172	164.62
15	조선업	33	53	36	107	110	2.8
16	철사 제품	199	105	104	107	101	-5.61
17	자전거 및 오토바이	9	14	35	43	70	62.79
18	철도 차량	60	61	50	41	47	14.63
19	인발봉강	12	20	18	17	41	141.18
20	식기류	44	60	45	46	24	-47.83

자료: Aco Brasil,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 (기업) 브라질에는 브라질 자국 기업 Gerdau, CSN, Usiminas뿐만 아니라 ArcelorMittal 등의 다국적 기업도 제철소를 보유하여 생산 중

브라질 철강 산업 주요 기업별 생산량

(단위: 천 톤)

순위	기업명(제철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ArcelorMittal Tubarão	4,973	7,089	6,641	6,604	6,936
2	Gerdau	6,220	6,974	6,496	5,843	6,139
3	Ternium Brasil	4,138	4,529	4,424	4,372	3,973
4	ArcelorMittal Aços Longos	3,007	3,184	4,053	3,740	3,945
5	CSN	3,810	4,260	3,773	3,062	3,346
6	Usiminas	2,760	3,178	2,655	2,069	3,186
7	ArcelorMittal Pecém	2,743	2,811	2,794	3,045	3,036
8	SIMEC	988	848	873	911	965
9	Vallourec	588	710	773	684	664
10	Aperam	696	754	691	726	575

자료: Aco Brasil,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편집

- (수출입) '24년 기준 브라질 철강 총 수출액은 76억 달러, 총 수입액은 58억 달러로 무역수지 23억 달러 기록
 - (품목) 수출은 반제품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크며, 수입은 평판제품 비중이 약 43%로 가장 큼
 - (국가) 브라질 철강 수출의 54%는 미국이 차지하며, 수입의 45%는 중국이 차지

2024년 브라질 철강제품별 수출입

(단위: 천 톤, 천 달러)

제품	수출		수입	
	수출량	금액	수입량	금액
총액(1+2+3+4)	9,571	7,637,463	5,957	5,873,043
1. 반제품(Semifinished Products)	7,255	4,651,681	1,187	630,467
2. 평판 제품(Flat Products)	865	840,653	3,060	2,536,081
비도금 제품(Uncoated Products)	495	386,222	1,046	647,909
도금 제품(Coated Products)	262	315,003	1,582	1,284,136
특수 합금강(Special-Alloy Steel)	107	139,428	431	604,036
3. 긴 제품(Produtos Longos/Long Products)	1,159	1,628,120	1,108	1,662,250
4. 기타 제품(Other Products)	290	517,009	601	1,044,245

자료: Aco Brasil,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2024년 브라질 철강 주요 수출입 대상국

(단위: 백만 불,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점유율	국가	금액	점유율
1	미국	4,137	54.2	중국	2,679	45.6
2	아르헨티나	566	7.4	독일	629	10.7
3	멕시코	353	4.6	러시아	362	6.2
4	캐나다	282	3.7	일본	288	4.9
5	페루	209	2.7	한국	269	4.6
6	도미니카공화국	203	2.7	미국	186	3.2
7	프랑스	171	2.2	이탈리아	149	2.6
8	콜롬비아	147	1.9	인도네시아	149	2.5
9	카타르	136	1.8	이집트	142	2.4
10	가이아나	117	1.5	베트남	114	1.9

자료: Aco Brasil,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 (동향)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수입 규제 강화
 - (투자) 브라질 정부 및 철강업계는 '28년까지 1,000억 헤알(200억 달러)을 투자하여 생산구조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추진
 - (수입 규제)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쿼터 및 반덤핑 조치 적극 실시
 - * 총 84개 수입 규제 중 철강/금속 분야 24개로 가장 많음
 - * '24년 8월부터 11개 철강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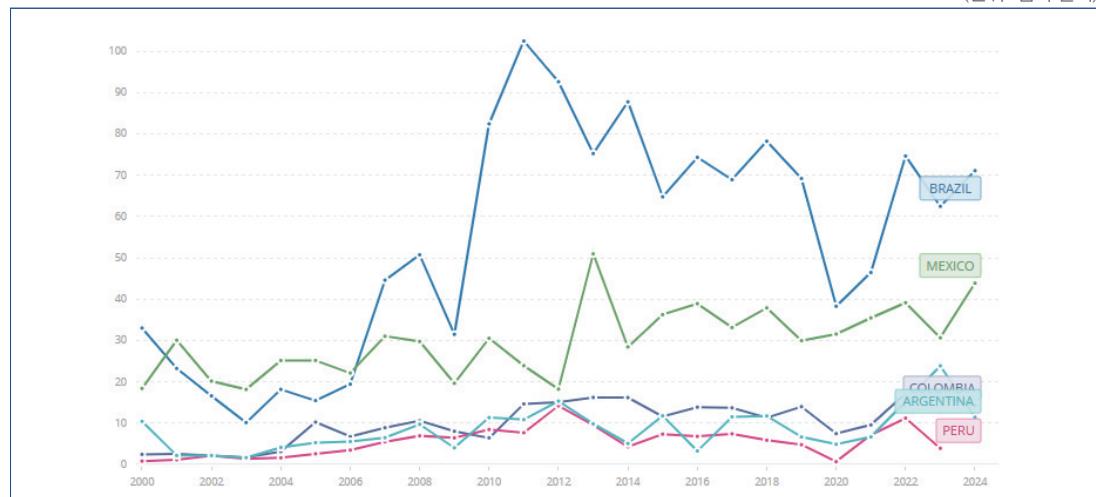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개요) 브라질, 중남미 최대 외국인 투자 유입국
 - '24년 기준 브라질 외국인투자액은 7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8% 증가
 - '06년까지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가 중남미 최대 외국인 투자 유입국이었으나 '07년부터 브라질이 1위

〈브라질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십억 달러)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브라질	38.27	46.44	74.61	62.44	71.07
멕시코	31.54	35.45	39.13	30.64	43.86
콜롬비아	7.46	9.56	17.18	16.79	14.23
아르헨티나	4.88	6.66	15.2	23.87	11.43
페루	0.66	7.14	11.2	3.92	6.89

자료: World Bank,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 (지역별) 브라질 외국인 투자는 제조업 및 주요 대도시가 밀집해 있는 남동부 및 남부에 집중됨
 - '01~'24년 누적 투자액 기준 남동부 68.15%, 남부 14.67%로 남동부 및 남부에 82.8% 집중
 - 주별로는 상파울루가 약 50%, 리우데자네이루가 9.77%를 차지

브라질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단위: %)

지역/주	2015년 투자액 비중	2020년 투자액 비중	2001~2025년 누적 투자액 비중
남동부	68.3	60.9	68.15
상파울루	52.7	47.3	49.84
리우데자네이루	9.3	7.4	9.77
미나스제라이스	6.3	6.2	7.02
남부	11.8	9.5	14.67
리우그란지두술	4.3	3.3	6.27
파라나	5.1	3.9	5.66
산타카타리나	2.4	2.3	2.75
북동부	10.5	19.0	8.66
바히아	3.4	3.0	3.04
페르남부쿠	2.1	2.5	2.37
중서부	6.4	7.3	5.52
고이아스	2.2	2.4	2.28
북부	3.0	3.3	3.00
아마존나스	1.0	1.2	1.67

-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는 주요 산업은 '24년 기준 금융(12.4%), 전력·가스·수도(10.9%), 도소매(10.3%)를 차지

브라질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액	비율	투자액	비율	투자액	비율
금융	4.0	9.1	4.5	11.6	4.3	12.4
전력·가스·수도	3.5	8.1	3.7	9.4	3.8	10.9
도소매	2.6	6.0	4.4	11.3	3.5	10.3
화학	2.0	4.7	1.3	3.2	2.5	7.2
식품	2.6	6.0	1.3	3.2	2.3	6.7
광업	0.6	1.3	3.9	10.0	1.2	3.5
IT	2.1	5.0	1.5	3.8	1.1	3.2
금속가공	0.4	1.0	0.3	0.8	1.1	3.2
석유·가스	1.3	3.0	0.6	1.5	1.1	3.2
농·축업	0.5	1.1	0.4	1.1	1.1	3.2
자동차	5.7	13.0	0.7	1.8	0.7	2.1
운송업	0.4	0.1	0.1	0.3	0.6	1.9
제약	0.5	1.2	0.1	0.4	0.5	1.5
펄프, 종이	0.5	1.2	0.03	0.1	0.5	1.5
통신업	0.2	0.4	0.1	0.3	0.5	1.4
기타 서비스	3.5	8.0	1.9	4.9	2.6	7.6

□ 주요 경쟁국 브라질 투자 유입 동향

- '06~'25년 상반기까지 누적 투자액 기준 對브라질 투자국 1위는 미국으로 전체 외국인투자액의 18.3% 차지
 -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이 상위 10개 중 8개

브라질 주요 투자 유치 국가 및 비중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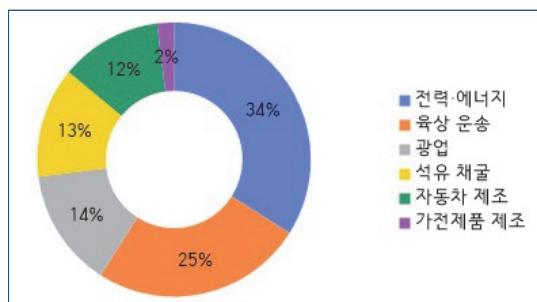
순위	국가명	2024년		2025년(1~6월)		누적('01~'25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	미국	8,480	24.4	3,770	21.6	181,470	18.3
2	네덜란드	5,370	15.4	2,550	14.6	175,840	17.7
3	룩셈부르크	343	1.0	2,040	11.7	77,180	7.8
4	스페인	1,420	4.1	767	4.4	67,580	6.8
5	프랑스	1,190	3.4	997	5.7	47,130	4.8
6	일본	1,350	3.9	353	2.0	41,830	4.2
7	독일	370	1.1	957	5.5	37,200	3.8
8	영국	1,720	5.0	1,200	6.9	35,290	3.6
9	스위스	2,170	6.2	210	1.2	34,540	3.5
10	칠레	2,070	6.0	160	1.0	26,550	2.7

주요 투자 유치 경쟁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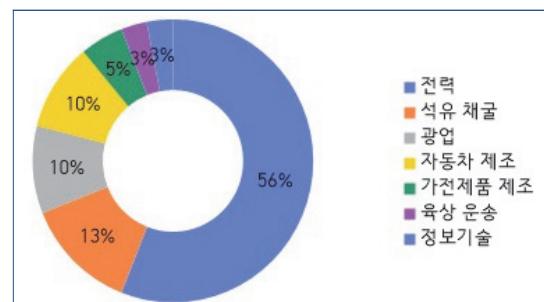
국가	누적 투자액	비중	주요 투자 분야	주요 기업
미국	18.3		금융, ICT, 농업,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CT : Microsoft, Google, Amazon • 농업 : Cargil • 자동차 : GM
네덜란드	17.7		유통, 소비재,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 Heineken, Philips • 에너지 : Shell
스페인	6.8		전력, 교통,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 Iberdrola • 교통 : Acciona, Sacyr • 통신 : Telefonica Vivo
프랑스	4.8		자동차, 에너지,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 Renault • 에너지 : Total, Engie • 유통 : Carrefour
일본	4.2		자동차, 전자,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 Toyota, Honda • 전자 : Mitsubishi electric
중국	5.0 이상 (추정)		에너지, 자동차,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 SPIC, State Grid, CGN • 자동차 : BYD, GWM, Cherry • 소비재 : Alibaba, Didi, Shein

- (중국) '24년 중국의 브라질 투자는 총 42억 달러로, '21년 59억 달러 이후 최대 규모
 - 브라질-중국 기업인협회(CEBC)에 따르면 브라질은 '24년 중국의 해외 투자 대상국 중 3위이며, '25년 상반기 누적 투자액 기준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
 - 중국의 對브라질 투자는 전력·에너지, 교통, 광업, 인프라 분야에 집중

〈브라질 내 중국 산업별 투자 동향〉



〈브라질 내 중국 프로젝트 투자 동향〉



자료: CEBC 발표자료,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2026년 주요 중국 기업 對브라질 투자 계획

분야	기업명	투자 내용	투자액(달러)
서비스	메이퇀(Meituan)	• “Keeta” 브랜드로 브라질 시장 진출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객센터와 물류 네트워크 구축	10억
	미쉐冰城 (Mixue Bingcheng)	• 식품기업(음료, 아이스크림 등), 현지 과일을 원료로 활용 예정	5.8억
제조업	장성자동차(GWM)	• 바히아주 카마사리 공장(前 포드 공장) 추가 투자 (하이브리드·전기차 라인 확장)	10.9억
	광저우자동차(GAC)	• 고이아스주에 신규 공장 설립(내연기관차 및 전기차)	13.3억
에너지	룽쑨반도체(Longsys)	• 상파울루·마나우스에서 메모리 칩 생산능력 확대	1,200만
	원정그룹(Envision Group)	• ‘제로 카본 산업단지’ 조성	9,000만
	중국광핵그룹(CGN)	• 피아우이주에 30억 헤알 투자, 풍력·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5,400만
	디디추싱(Didi Chuxing)	• 택배 서비스 확대 및 전기차 충전기 1만 대 설치	미정

자료: CEBC 발표자료, KOTRA 상파울루무역관 편집

- 향후 중국 對브라질 투자 분야

- (광물) 브라질의 리튬과 희토류 자원은 중국의 배터리,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으로 제도 정비 시 투자가 급증 예상
- (재생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지속적으로 확대, 기존 전력망의 현대화와 신재생 전력망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전망
- (소비재) 브라질 내수를 겨냥한 자동차, 전자상거래 및 물류 분야의 투자 확대 예상

□ 한국의 브라질 투자 진출

- 브라질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10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한 중남미 핵심 협력 국가이며, 향후 한국 기업 진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980~2025년 1분기까지 한국의 브라질 누적 투자액은 약 108억 달러로, 누적 투자액 기준 중남미 국가 중 1위
- 주요 진출 분야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이며, 주요 진출 지역은 상파울루주, 마나우스주

한국의 브라질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3월)
신고건수	63	34	21	38	7
신고금액	685	98	1,177	179	42
신규 법인 수	10	5	1	10	2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기업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1~3월)
농업, 임업 및 어업	0	0	1	0	0
제조업	462	90	1,175	167	41
건설업	1	1	1	2	0
도매 및 소매업	34	10	0	0	0
운수 및 창고업	51	0	0	1	0
정보통신업	0	2	0	1	0
부동산업	103	0	0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5	1	3	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	0	0	2	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삼성전자, 브라질 스마트폰/가전제품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법인 설립

- (기업 정보) 삼성전자는 브라질 상파울루주 캄피나스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에 스마트폰/가전제품 조립 공장 보유
- (성공 사례) 삼성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약 43%
 - 중저가 모델~프리미엄 모델까지 다양한 제품 스펙트럼으로 많은 소비층 공략
- (시사점) 제품 사양 및 가격대 현지화(예: 전력 사양, 고객 선호 기능) 필요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현대자동차, 브라질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법인 설립

- (기업 정보) 현대자동차는 2012년 상파울루주 빠라시까바(Piracicaba)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며 브라질 시장 진출
- (성공 사례) 현대자동차 브라질 시장 점유율 8.6%로 4위('24년)
 - 현대자동차의 현지 모델 HB20는 B세그먼트 판매량 2위, CRETA는 SUV B세그먼트 판매량 1위 기록
- (시사점) '현지 생산을 통한 관세 및 원가절감', '제품 현지화를 통해 브라질 고객에 맞는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 필요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치과기자재기업 오스템임플란트, 브라질 주요 경쟁기업 M&A를 통한 시장 공략

- (기업 정보)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 치과 임플란트 업체로, 2024년 Implacil de Bortoli(브라질 내 치과 임플란트업체, 시장 점유율 3위)를 약 8,980만 달러에 인수
- (성공 사례) 인수를 통해 브라질 내 유통망 및 고객 기반 확보됨. Implacil은 제품군이 1,300개 품목 이상, 배포센터 5개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약 13,000명의 고객사 확보
- (시사점) M&A를 통해 유통 네트워크, 브랜드 인지도, 인증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인사·노무)
 - (복잡한 노동법) 브라질 노동법(CLT)은 매우 상세하고 규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정규직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13월 급여, 퇴직금(FGTS) 등 다양한 혜택이 의무화
 - (높은 고용주세 및 간접비용) 법정 급여 외에, 고용주는 사회보장세(INSS), 실업보험(FGTS), 13번째 월급, 연차휴가비, 건강보험 등의 법정 복리후생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총 인건비가 실제 급여 대비 1.5~2배까지 상승
 -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의 영향력) 다양한 업종별 노동조합이 활동 중이며,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지는 근로조건이 법률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존재
 - (법적 리스크) 근로자 해고 시 소송 가능성성이 높으며 퇴직금, 실업보상, 전직 지원 등의 복잡한 해고 절차가 존재
- (투자 제한 분야)
 - 브라질은 국가 안보 및 국익에 중요한 분야는 외국인 투자 금지 또는 제한

브라질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분야	법적 근거	내용
농지 소유 및 국경지역	법률 nº 5.709/19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또는 외국 자본이 지배하는 브라질 법인이 국경지대(150km 이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연방 국방위원회(CDN)의 사전 승인 받아야 함
원자력	연방헌법 (제21조, 제17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개발, 우라늄 등 핵 광물 채굴·농축, 원자력 발전소 운영은 연방정부 독점 • 외국인 투자 직접 참여 불가(장비·기술·서비스 제공은 가능)
방위·항공 우주 산업	법률 nº 12.598/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서비스/연구개발 시설을 반드시 브라질 내에 둘 것 • 외국인 자본 참여는 가능하나 외국인 주주가 주주총회 또는 경영 의사결정을 2/3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제한
미디어·통신	연방헌법 (제2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 언론·방송 기업의 자산은 10년 이상 브라질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브라질 법인만 소유 가능 • 외국인 지분 최대 30%까지만 허용 • 편집권·운영권은 반드시 브라질 국적자가 행사
원주민 보호구역 내 광물 채굴	연방헌법 (제2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민 보호구역 내 광물 채굴은 의회의 별도 법률이 제정되어야 가능 • 현재까지 관련 법이 없으므로, 외국인·내국인 모두 채굴 불가

2. 유망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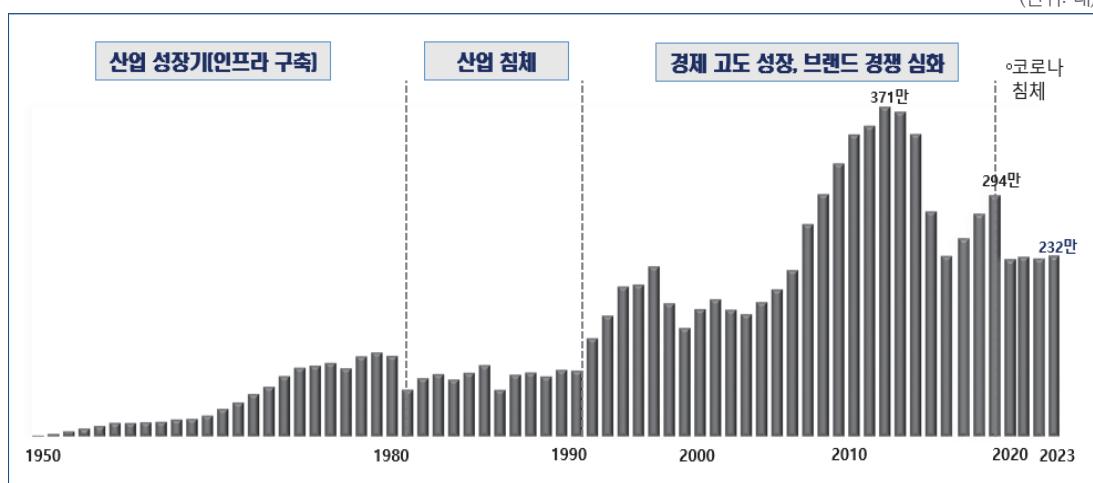
가. 자동차 부품

□ 산업 규모

- (개요) 브라질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24년 기준 GDP의 4.0%, 제조업 GDP의 22%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
 - '24년 기준 브라질 자동차 산업은 26개의 제조사, 508개의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4,215개 대리점이 있음
- (생산) '24년 기준 브라질 자동차 산업은 생산량 기준 세계 8위
 - 침체되었던 생산량이 '22년부터 회복('22년) 238만 대 → ('23년) 234만 대 → ('24년) 256만 대)

〈연도별 브라질 자동차 생산량〉

(단위: 대)



자료: 브라질자동차협회(Anfavea)

- (판매) '24년 기준 브라질 자동차 판매량 기준 세계 6위
 -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며 판매량 증가세
 - * 최근 3개년 판매량(만 대) : ('22년) 210 → ('23년) 232 → ('24년) 263
 - 2023년부터 판매량 기준으로 폭스바겐(1위), 피아트(2위), GM(3위)를 기록
 - 모델별로는 상위 10개 모델 중 소형 헤치백 6종, 소형 SUV 4종

브라질 자동차 제조사·모델별 판매량 순위

(단위: 대)

순위	기업명	제조사			모델명	모델		
		2023년	2024년	2025년(1~7월)		2023년	2024년	2025년(1~7월)
1	폭스바겐	290,421	336,076	190,144	Strada (피아트)	120,600	144,685	62,697
2	피아트	277,259	290,327	168,716	Polo (폭스바겐)	111,242	140,177	57,216
3	GM	271,788	258,639	115,720	T-Cross (폭스바겐)	72,441	83,997	44,529
4	현대	185,014	203,969	99,488	Argo (피아트)	66,717	91,139	44,466
5	도요타	146,078	153,798	77,789	HB20 (현대)	88,905	97,079	36,873
6	지프	126,652	120,967	65,515	Onix (GM)	74,887	97,503	34,389
7	혼다	72,050	91,468	58,123	Mobi (피아트)	73,428	67,382	33,230
8	르노	102,717	112,061	52,091	HR-V (혼다)	48,059	50,400	32,002
9	닛산	64,166	78,192	38,762	Creta (현대)	65,817	69,116	31,177
10	Caoa Chery	31,480	60,933	34,979	Corolla Cross (도요타)	42,075	47,796	30,090

- (수출입) 2018년부터 브라질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수출을 초과하여 무역 적자 증가
 - '24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역사상 최고치인 130억 달러 기록

브라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3/'24년 증감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3/'24년 증감률
자동차	5,790	6,987	6,489	6,703	3.3	6,635	8,007	8,726	7,575	-13.2
자동차 부품	6,635	8,007	8,726	7,575	-13.2	17,871	20,319	19,559	21,809	11.5
총계	12,426	14,994	15,216	14,279	-6.2	24,507	28,327	28,285	29,384	3.9

자료: 브라질자동차협회(Anfavea)

2026 브라질 진출전략

- (수출)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의 자동차 부품 수출 대상국은 아르헨티나가 34.6%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2위는 미국, 3위는 멕시코
- (수입) 수입 대상국은 중국이 18.5%로 1위, 2위는 미국, 3위는 독일

브라질 자동차 부품 국가별 수출입 점유율

(단위: %)

순위	국가	수출		수입	
		2023년	2024년	국가	2023년
1	아르헨티나	36.7	34.6	중국	16.0
2	미국	15.2	17.5	미국	12.7
3	멕시코	10.	11.8	독일	9.6
4	독일	6.8	5.7	일본	8.6
5	칠레	2.7	3.2	멕시코	7.2
6	콜롬비아	3.1	2.6	이탈리아	5.5
7	파라과이	2.6	2.6	한국	4.7
8	페루	1.5	1.5	스웨덴	3.6
9	가이아나	1.9	1.4	아르헨티나	4.6
10	이탈리아	1.8	1.6	프랑스	3.7
					3.8

- (수입) 품목은 기어박스 및 부분품이 가장 많으며, 내연기관 부품, 기어링 등을 주로 수입

브라질 자동차 부품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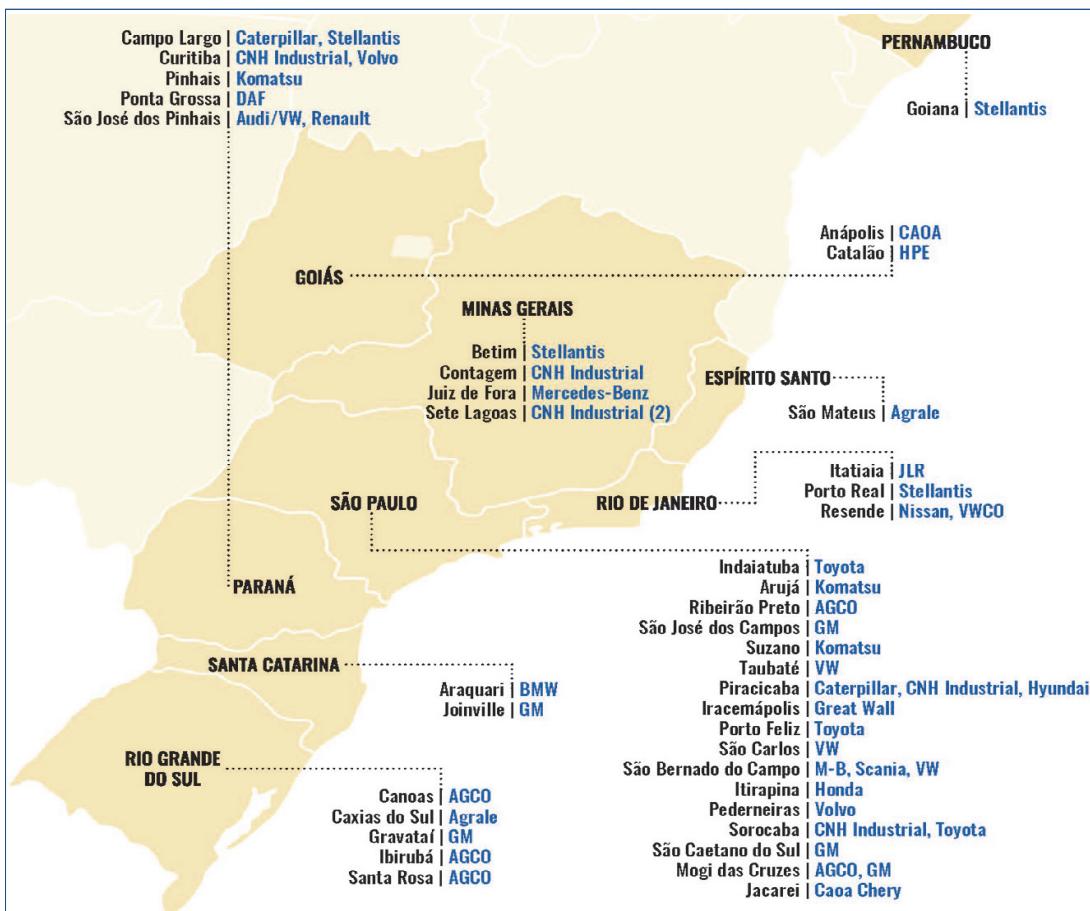
NCM 분류	품목	2023년	2024년	'23/'24년 증감률
8708.99.90	자동차 기타 부품 및 액세서리	1,791,972	2,059,509	14.95
8409.99.12	엔진 실린더 블록과 크랭크 케이스	904,925	1,807,991	99.78
8407.34.90	1,000cm ³ 초과 추진용 엔진	985,143	1,079,703	9.60
8708.29.99	기타 왕복 피스톤 엔진 자동차 부품	483,229	557,779	15.43
8707.90.90	자동차 차체 구조 및 운전석 포함	446,726	529,879	18.61
8481.80.99	기타 벨브	730,953	525,499	28.13
8708.30.90	트랙터 및 자동차용 기타 브레이크 및 부품	517,082	509,544	1.46
8408.20.90	기타 차량 추진용 엔진	387,057	469,353	21.27
8409.99.59	엔진 기타 헤드	46,626	461,615	889.97
8708.80.00	서스펜션 쇼크 업소버	381,664	441,792	15.75
기타 품목		11,730,492	13,211,431	12.63
	총액	18,775,874	20,934,099	11.49

자료: Anfavea

□ 현지 주요 기업 및 동향

- (제조사) 26개 기업은 53개의 산업단지에 분포
 - 이들 공장은 브라질 내 9개 주, 38개 도시에 분포

〈브라질 자동차 제조사 생산공장 위치〉



자료: 브라질자동차협회(Anfavea)

브라질 주요 자동차 제조사

기업명	매출 규모(USD)	생산 규모(대)	점유율	주요 차종
FCA	13.5억	41.2만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 세단(Cronos) 소형 해치(Argo, Mobi) 소형 SUV(Pulso) 소형 픽업트럭(Strada)
Volkswagen	12.8억	37.9만	1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 세단(Virtus) 소형 해치(Polo) 소형 SUV(T-cross, Nivus) 소형 픽업트럭(Saveiro)
GM	11.2억	27.3만	1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 세단(Onix plus) 소형 해치(Onix) 소형 SUV(Tracker)
Hyundai	7.3억	20.8만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 해치(HB20) 소형 SUV(Creta)
Toyota	7.2억	20.2만	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 SUV(Corolla cross) 준중형 세단(Corolla) 중형 픽업트럭(Hilux)
Renault	5.0억	14.9만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 해치(Kwid) 소형 SUV(Duster)
Honda	3.3억	9.1만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 해치(City) 소형 SUV(HR-V)
Caoa Cherry	1.8억	6.2만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형 SUV(Tiggo 7) 중형 SUV(Tiggo 8)

- (부품사) 브라질 내 주요 Tier-1 부품사는 45개사이며, 브라질 자동차부품협회(sindipeca) 회원사는 약 500개사

브라질 주요 부품사

기업명	매출 규모 (USD)	주 생산품	주 납품처
Bosch	6.7억	• ECU, ABS 시스템, 센서류	• Volkswagen, GM, Stellantis, Toyota
Valeo	5억	• 조명 시스템, 공조 시스템, 전기부품	• Renault, Nissan, GM
ZF	약 4.5억	• 변속기, 새시 부품, 브레이크 부품	• Volkswagen, Stellantis, Mercedes-Benz
Delphi(Phinia)	약 3억	• 연료 시스템 부품, 점화 시스템 부품	• GM, Stellantis, Ford
Mahle	약 2억	• 엔진 부품(피스톤, 필터, 냉각 시스템 부품)	• Volkswagen, GM, Stellantis

기업명	매출 규모 (USD)	주 생산품	주 납품처
Yazaki	약 2억	• 와이어링 하네스	• Toyota, Honda, Nissan
BorgWarner	약 1.8억	• 터보차저, 전기 추진 모듈, 쿨링 시스템	• GM, Stellantis
Aptiv Brasil	약 1.5억	• 전기 배선 하네스, 커넥터, 센서류	• Bosch, Lear, GM, Stellantis
Autoliv do Brasil	약 1.2억	• 에어백, 안전벨트, 차량 안전 시스템	• Honda, Toyota, Nissan
LuK do Brasil	약 0.9억	• 클러치 시스템, 듀얼매스 플라이휠	• Volkswagen, GM, Stellantis

- (정책 동향) 그린모빌리티(MOVER) : 친환경 자동차·저탄소 모빌리티 전환
 - 브라질 정부는 전체 자동차 산업 및 운송 부문의 지속가능성 강화 및 저탄소 전환 촉진
 - 생산부터 차량 주행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관리 요구
 - 에너지 효율성 기준, 차량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자재 사용, 차량 배터리·하이브리드·전기차 및 바이오연료 활용 증대
 - 친환경·고효율 차량에 대해 세율 감면 혜택 제공하여 생산 촉진
 - 친환경 차량 기술, 전기구동(electrificação), 인프라 개선(충전소 등) 및 관련 기술 혁신 투자 유도

MOVER 세부 제도

항목	세부 내용
녹색 IPI(IPI Verde)	• 자동차 및 기타 산업체품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배출가스량, 재활용성 등의 환경 기준을 반영하여 차등 세율 적용. 친환경 차량에는 세제 혜택 제공
세제 인센티브·크레딧	• 친환경 기술 및 탈탄소화 관련 투자에 대해 법인세 공제, 세금 크레딧 제공 등 인센티브. 총 약 R\$ 19~20억 규모(2024~2028년)
배출가스 및 탄소 규제	• 제조사에 “Well-to-Wheel” 전체 탄소 배출량 평가 요구. 차량의 생산-운행-폐기 전 과정에서 탄소저감 목표 설정 및 규제화 진행 중
혁신 기술 R&D 지원	• 전기차, 하이브리드, 바이오연료, 대체 추진 시스템 등 첨단 기술 개발을 장려. 정부가 지정한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우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품 지속가능성 요건	• 차량 제조 시 재활용 자재 사용, 국산화율 기준 충족, 환경 인증 요건 등 강화. 지속가능한 차량 생산 기준 마련 및 친환경 자재 사용 유도

□ 기회 요인 및 유망 품목

- (기회 요인) 브라질 정부는 자국 내 친환경 자동차 생산 촉진을 위해 완성차 수입관세는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생산에 필요한 부품은 낮은 관세 유지
 - * 하이브리드 15%, 전기차 10%('24년 1월) → 하이브리드 35%, 전기차 35%('26년 7월)
 - 친환경 자동차에 탑재되는 친환경·첨단 부품은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단기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

- (유망 품목)

-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 브라질 정부는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자율 긴급 제동 시스템(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의 의무화를 추진 중
- ECU 및 차량 전장 시스템 : Stellantis, GM, Toyota, Volkswagen 등 주요 제조사들이 전장부품의 현지 조달 확대 및 기술 내재화를 추진 중이나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품사는 Bosch, Delphi, Aptiv 등 일부에 불과하며 수입에 크게 의존
-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열관리 부품 : 친환경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e-컴프레서, 배터리 쿨링 시스템 등 열관리 부품 수요 증가 예상
 - * 최대 공업세 2%P 감면

나. 항공기 부품

□ 산업 규모

- (개요) 브라질의 민간항공 규모 세계 2위, 제조사 엠브라에르(Embraer) 세계 3위
 - 597개의 유지보수 업체와 291개의 항공학교, 약 5,000개의 비행장·헬리포트 보유
 -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는 보잉,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 항공기 제조사
- (생산·판매) 브라질의 항공기 생산 체인은 엠브라에르를 중심으로 구축
 - 엠브라에르의 항공기 생산 및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
 - '25년 2분기 기준, 엠브라에르의 항공기 확정 주문은 총 1,397대, 현재까지 인도 완료 960대, 잔여물량 437대(엠브라에르 '24년 수주잔고 187억 달러로 '18년 이후 최고)

엠브라에르 항공기 제조(인도) 현황

(단위: 대)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분기 누적)	2025년 예상
비즈니스(개인) 제트기	57	64	73	61	145~155
상업용 항공기	102	115	130	26	77~85
군용 항공기	1	2	3	4	-
총계	160	181	206	87	222~240

- 엠브라에르 상업용 항공기는 주로 미국 항공사에 판매되었으며 그 외에 스웨덴, 캐나다, 일본, 멕시코 등의 항공사에 판매

2025년 2분기 누적 상업용 항공기 주문 및 인도 현황

(단위: 대)					
모델	기업명	국적	확정주문	인도량	잔여
Embraer 175	American Airlines	미국	204	114	90
	Skywest	미국	288	214	74
	Republic Airlines	미국	187	152	35
	Horizon Air	미국	50	47	3
	비공개	-	4	1	3
Embraer 195-E2	기타	-	267	264	3
	Azul	브라질	51	-	51
	SAS	스웨덴	45	-	45
	Porter	캐나다	75	44	31
	Aercap	아일랜드	43	31	12
Embraer 190-E2	Azorra	미국	23	12	11
	기타		93	53	40
	ANA	일본	15	-	15
	Mexican	멕시코	10	-	10
	Azorra	미국	16	9	7
	Virgin Australia	호주	4	-	4
	Aircastle	미국	2	-	2
	기타		20	19	1

자료: Embraer

- (수출입) 항공기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항공기 부품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무역수지 적자 기록
 - 항공기 수출이 증가하며 항공기 부품 수입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

브라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수출입

구분	수출				'23/'24년 증감률	수입				'23/'24년 증감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항공기	2,197	2,517	2,993	3,792	26.7	1,031	1,684	1,608	2,482	54.4
항공기 부품	400	489	554	588	6.1	1,036	1,114	1,240	1,495	20.6
총계	2,597	3,006	3,547	4,380	23.5	2,067	2,798	2,848	3,977	39.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 국가별로 보면 브라질의 항공기 부품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 52.2%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의 유럽 국가에 수출
- (수입) 수입 대상국은 미국이 28.7%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은 6,000만 달러로 5위를 기록

브라질 항공기 부품 국가별 수출입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수출		국가	수입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1	미국	291	307	미국	347	428
2	프랑스	60	81	포르투갈	154	192
3	벨기에	52	54	프랑스	130	157
4	스페인	46	49	멕시코	70	87
5	이탈리아	19	23	한국	40	60
6	영국	13	16	벨기에	39	48
7	독일	13	11	오스트리아	42	40
8	스웨덴	6	6	이탈리아	32	39
9	포르투갈	7	5	영국	33	36
10	칠레	16	4	스페인	27	35

자료: 한국무역협회

□ 현지 주요 기업 및 정책

- (제조사) 엠브라에르를 필두로 소형·농업용 항공기 및 헬리콥터 제조사 존재

브라질 주요 항공기 제조사

기업명	설립 연도	주요 제품
Helibras (에어버스 자회사)	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용 헬리콥터 생산 후 브라질 군에 납품
Scoda Aeronáutica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륙양용 비행기 'Super Petrel LS' 생산 • 프랑스 Hydroplum II 항공기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 • 브라질,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판매
Paradise Indústria Aeronáutica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인용 훈련기 생산(Eagle, P1, P1 NG, P2-S, P-4) • 브라질, 미국 등에 판매
Octans Aircraft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용 항공기 240대 이상 생산
ACS Aviation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용, 아크로바틱 항공기 생산(Sora-100, Sora-E) • 전기 모터로 구동하는 항공기 개발 중(Z-300 EVTOL)
Stella Tecnologia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용 드론 생산(Atobá) * 11미터 길이에 500kg 중량을 가진 남반구에서 생산된 가장 큰 드론

- (부품사) 브라질 내 항공기 부품사들은 엠브라에르 협력사가 대다수

브라질 주요 항공기 부품 기업

기업명	설립 연도	주요 제품
Globo Usinagem	1985	• 연간 약 60만 개 부품을 엠브라에르 등 항공회사에 공급
Akaer Engenharia	1992	• 1993년 엠브라에르와 거래 시작 • 슈퍼 투카노 전투기, E-Jets 등체 부품의 약 50% 공급
UFT Usinagem	1991	• PDCA 프로그램 참가(2006년부터 엠브라에르에 납품)
Usimaza	2007	• 훈련용 항공기 240대 이상 생산
Lanmar	1973	• 2012년 PDCA 프로그램 참가, 항공기 부품 생산

- (정책) 엠브라에르 항공 체인 개발 프로그램(PDCA)
 - 엠브라에르는 브라질 산업개발청(ABDI)과 '11년부터 공급망 및 공급업체 육성, 품질 향상, 납기 및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PDCA 프로그램 실시
 - 공급업체 대상 교육, 개선 워크숍,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
 - PDCA 도입 이후 공급업체의 공급량 12%, 매출 12.4%가 증가하였으며, 온타임 납품률 7.7% 개선

□ 기회 요인 및 유망 품목

- (기회 요인)

- ① 韓 공군 엠브라에르 C-390 수송기 도입에 따른 절충교역 : 수송기 계약 조건에 포함된 1억 3,500만 달러 규모의 절충교역으로 엠브라에르와의 협력 확대 채널 구축
- ② 엠브라에르 생산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 니즈 : 엠브라에르는 모든 모델의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팬데믹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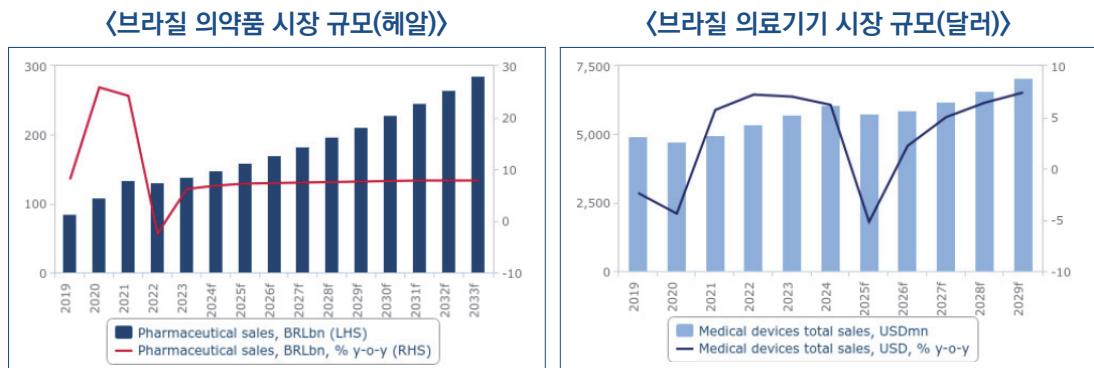
- (유망 품목)

- 에어로스트럭처 : 엠브라에르가 항공기 제작 시 경량화 및 복합 재료 적용 증대 추세
- 첨단 복합 재료 및 경량 소재 : 연료 효율성 향상 및 중량 감소가 항공기 설계의 핵심 추세
- 항공 내장품(Interiors) 및 후속 지원 : 엠브라에르는 “Parts Solutions” 프로그램을 통해 스페어 파트, 항공기 인벤토리 관리 등에 주력 중

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산업 규모

- (개요) 중남미 최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소비시장
 - (의약품) '24년 기준 매출 규모 286억 달러로 중남미 최대, 세계 8위
 - (의료기기) '24년 기준 매출 규모 60억 달러로 중남미 최대, 세계 9위



(단위: 달러, %)

연도	의약품			의료기기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억)	254	279	286	46	57	60
매출 증가율(전년 대비)	1.9	9.8	2.6	12.2	23.9	5.3
1인당 지출액	118	129	131	23.6	26.4	27.6

자료: BMI

- (생산)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브라질 의약품·의료기기 생산액, 수출액,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의약품			의료기기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생산액	20,700	23,700	26,500	4,006	4,510	5,050
수출액	1,103	1,200	1,323	572	608	697
수입액	9,559	10,492	10,763	3,108	3,374	3,673
수입액 증가율	-10.6	9.8	2.6	14.3	8.5	8.8
무역수지	-8,456	-9,292	-9,439	-2,536	-2,766	-3,976

자료: BMI

- (수입) 의약품 및 의료기기 모두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크며, 수입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 확대
 - (품목별) '24년 수입액 기준으로 의약품은 투여형 면역제품이 33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는 기타 의료·외과기기가 5.6억으로 가장 많았음

2024년 브라질 의약품·의료기기 10대 수입품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의약품			의료기기		
	HS코드	품목명	수입액	HS코드	품목명	수입액
1	30021590	기타 면역제품(투여)	3,305	90189099	기타 의료, 외과 기기	559
2	30049069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함유 의약품	1,556	90213910	인공관절	458
3	30049079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의약품(기타)	890	90181980	기타 전기진단기기	363
4	30043929	기타 펩타이드 호르몬 제제(투여)	888	90213990	기타 보철기	350
5	30024129	기타 인체용 백신(투여)	739	90214090	청력 검사기	194
6	30049099	기타 의약품	545	90221200	CT 기기	177
7	30022029	기타 면역글로불린 및 분획	297	90222120	MRI 기기	171
8	30049039	기타 스테로이드 호르몬 함유 의약품	291	90221400	치과용 X-레이 기기	163
9	30049019	기타 항생제 의약품	248	90229080	의료장비 부품	158
10	30043219	기타 코르트코스테로이드	241	90182090	초음파 기기	157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국별) '24년 기준 의약품은 미국이 23억 달러로 1위 수입국, 의료기기도 미국이 19.6억 달러로 1위를 기록. 한국은 의료기기 2.3억 달러로 수입 대상국 8위 기록

브라질 의약품·의료기기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의약품			의료기기		
	국가	2023년	2024년	국가	2023년	2024년
1	미국	1,789	2,339	미국	1,857	1,960
2	독일	1,623	1,695	중국	1,263	1,521
3	스위스	914	1,083	독일	853	941
4	아일랜드	712	952	일본	410	449
5	덴마크	539	784	멕시코	410	428
6	이탈리아	647	771	프랑스	232	261
7	프랑스	488	598	이탈리아	207	234
8	인도	507	546	한국	213	225
9	스페인	300	443	스웨덴	70	189
10	오스트리아	263	402	스위스	176	185

자료: 한국무역협회

□ 현지 주요 기업 및 동향

- (주요 기업) 브라질 의약·의료기기 시장에는 다수의 자국 기업 및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 중
 - 의약품의 경우 상위 5개 기업 중 4개가 브라질 국적 기업으로 자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음
 - 의료기기의 경우 미국, 독일, 스위스 등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 다수 존재

브라질 주요 의약·의료기기 기업

구분	기업명	주요 제품
의약품	GRUPO NC (브라질·시장 1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의약품(만성 질환 치료, 중추신경계, 심혈관계 등) • 제네릭, 일반 의약품(OTC), 바이오시밀러 • 신약(Brace Pharma라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연구개발 중)
	EUROFARMA (브라질·시장 2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개의 의학 전문 분야와 140개 이상의 치료군 커버 • 중추신경계 의약품, 항감염제, 호르몬제, 또한, 제네릭, 처방약, 일반의약품, 병원용 의약품, 항암제 포함
	HYPERA (브라질·시장 3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의약품, 전문 의약품, 제네릭, 스킨케어 등 넓은 제품군 • 일반의약품 시장에서 브랜드 21개, 300개 이상 제품 포트폴리오
	SANOFI (프랑스·시장 4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제품 350개 이상) : 정신과 약물, 당뇨병 치료제, 항암제, 백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치료제를 보유 • 정신과 관련 의약품들이 주요 제품군으로 자리 잡고 있음
	CIMED (브라질·시장 5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제네릭, 비타민, 보충제, 위생 및 미용 제품 등 600개 이상의 다양한 제품 • 브라질 내 약국의 98% 이상에 제품을 공급
의료기기	Siemens Healthineers Brasil(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진단 부문: MRI, CT, X-레이 시스템, 분자 영상 및 초음파
	Straumann (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용 임플란트 시스템, 재생의료제품, 보철 등
	Nipro Medical Corporation do Brasi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의 의료용 산소 공급기(oxygenadores), 정밀 주사바늘 및 카테터 등도 제조
	LivaNova Brasil(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 기능 장비, 산소 공급기, 자가수혈기, 일회용 의료 소모품
	Johnson & Johnson Medical Devices(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wae 브랜드의 Altus 이름으로 판매되는 다양한 X선 시스템 • 기타 영상진단용 첨단 장비

- (동향) 정부·민간분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 증가
 - (정부) 통합 공공 보건 시스템(SUS)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 정부는 복지 확대 기조의 일환으로 1차 진료를 지역사회 단위까지 확대하는 ‘Programa Saude da Familia(가정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 증가
 - (민간) 보험회사 및 사립병원들은 진료 비용을 경감하고자 질병 조기 진단, 예방 검사, 원격의료 등을 확대하고 있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 증가

□ 기회 요인 및 유망 품목

- (기회 요인)
 - 정부의 복지 확대, 고령화·웰빙 등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 증가
 - 팬데믹 이후 TeleSUS 등 원격의료가 확대되며,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자 증가
- (유망 품목)
 - 진단 제품 및 기기 : 빠른 진단 및 예방 중심 정책 하에 공공병원, 진단실, 약국 등의 높은 수요
 - 영상진단·엑스레이·초음파 장비 : 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원 확장, 원격의료 확대, 특히 중소 도시/지역 병원에서 요구 증가
 - 임플란트·정형외과 및 심혈관기기 : 인구 고령화, 사고 및 만성 질환으로 수요 증가
 - 헬스케어 IT, 원격의료 : 공공/민간 양쪽에서 수요가 높고 특히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유망. 디지털 전환 추세와 정부 정책 지원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FTA

- (현황)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개별적인 무역협정보다 Mercosur 차원의 무역협정 체결
 - 중남미 인근 국가와의 무역협정 체결 비율이 높음

브라질 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체결국	체결일자	발효일자
브라질-우루과이 경제보완협정	우루과이	1983년 6월 20일	1985년 10월 16일
브라질-아르헨티나 경제보완협정	아르헨티나	1990년 12월 20일	1990년 12월 20일
메르코수르-칠레 FTA	칠레	1996년 6월 27일	1996년 10월 1일
메르코수르-볼리비아 경제보완협정	볼리비아	1996년 12월 17일	1997년 2월 28일
브라질-멕시코 경제보완협정	멕시코	2002년 9월 23일	2003년 5월 2일
브라질-기이아나 경제협정	기이아나	2001년 10월 29일	2004년 5월 31일
메르코수르-콜롬비아/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경제보완협정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2004년 10월 18일	2005년 2월 1일
메르코수르-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2007년 12월 18일	2010년 4월 28일
메르코수르-페루 경제보완협정	페루	2005년 11월 30일	2006년 2월 6일
메르코수르-쿠바 경제보완협정	쿠바	2003년 7월 2일	2006년 7월 21일
메르코수르-인도 무역특혜협정	인도	2004년 1월 25일	2009년 6월 1일
메르코수르-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2022년 7월 20일	2023년 12월 7일

- (한-메르코수르 FTA) '21.8월 이후 중단된 상태
 - ('18년 5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
 - ('21년 8월) 양측은 8월 7차 협상까지 실시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
 - 최근 한-브 TIPF 체결('23년) 및 브라질의 다자주의 외교 강화에 따라 재개될 가능성 증가
 -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은 자동차, 기계, 가전제품 등의 공산품, 메르코수르는 농산물, 광물, 펄프 등의 원자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나. 프로젝트

□ 프로젝트 시장 동향

- '24년 브라질 인프라 투자액은 532억 달러로 추정되며, '25년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555억 달러로 전망
 - 에너지 분야가 전체 인프라 투자액의 40% 이상을 차지

브라질 섹터별 인프라 투자액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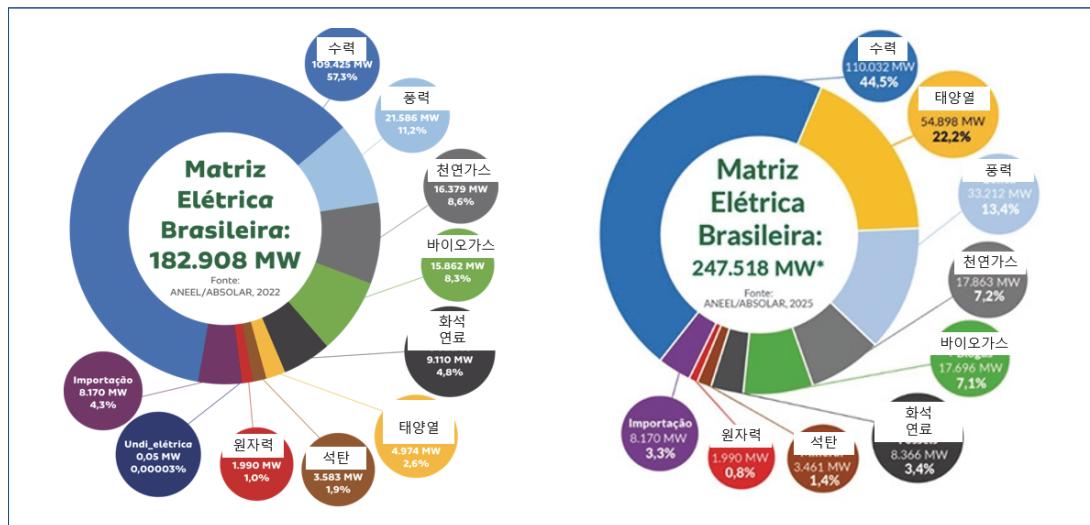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예측)		
	공공	민간	총액	공공	민간	총액	공공	민간	총액
에너지	22	207	229	25	200	225	29	197	226
통신	0.2	61	61.2	0.1	56	56.1	0.4	57	57.4
상하수도	40	28	68	44	38	82	30	62	92
교통	81	70	151	88	81	169	95	85	180
도로	68	25	93	67	25	92	69	24	93
항구	1	9	10	3	10	13	4	9	13
수로	0.4	0.6	1	0.4	0.6	1	0.8	0.6	1.4
철도	0.4	21	21.4	0.6	35	35.6	0.8	39	39.8
공항	0.4	6	6.4	0.6	7	7.6	2	7	9
도시교통	10	8	18	17	4	21	19	5	24
합계	143.2	366	509.2	157.1	375	532.1	154.4	401	555.4
GDP 대비 %	0.63	1.60	2.23	0.67	1.60	2.27	0.61	1.59	2.21

자료: Inter.B

□ (협력 유망분야) 친환경 에너지

- (현황) 브라질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친환경 에너지 비중 확대
 - 브라질은 수력이 전력매트릭스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및 홍수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태양열·풍력·원자력 에너지 개발
 - '22년 풍력 11.2%, 태양광 2.6%에 불과했으나 '25년 풍력 13.4%, 태양광 22.2%로 확대

〈브라질 전력매트릭스 변화(2022 → 2025년)〉



- (전망) '31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브라질 풍력 및 태양광 주요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명	위치(주)	발전용량(MW)	발주처
태양광	Helio Valgas Solar PV Park	Minas Gerais	766	Mercury Renew
	Sol do Sertão Solar PV Park	Bahia	475	EDF, Canadian Solar
	Pirapora Solar Complex	Minas Gerais	321	EDF
	ArcelorMittal/Atlas Solar Plant (Luiz Carlos complex)	Minas Gerais	265	Atlas Renewables, ArcelorMittal Brasil
풍력	Oitis Onshore Wind Farm Complex	Piauí	566	Iberdrola, Neoenergia
	Ventos de Santa Eugênia Wind Complex	Maranhao	519	Statkraft
원자력	Two wind farms by SPIC in Rio Grande do Norte	Rio Grande do Norte	105	SPIC(중국)
	Angra I & II	Rio de Janeiro	1,875	운영 중 (유지보수 지속)
	Angra III	Rio de Janeiro	1,245	건설 중단 (공정률 60%)

- 우리 기업의 현지 프로젝트 협력 성공 사례



성공 사례 : 한전 KPS 브라질 앙그라 원전 2호기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주

- (개요) 브라질 정부는 에너지 매트릭스 다변화를 위해 앙그라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결정
 - 원전 운행을 위해 유지보수 수요 증가
- (내용) 한전 KPS, 205만 달러 규모 앙그라 1·2호기 유지보수 프로젝트 수주('24.7.)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발주처 네트워킹을 통한 수요 조기 포착 및 비공개 정보 수집
 - 한국 개최 행사에 방한 바이어로 초청하여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 기술력 홍보

다. 공급망

□ 규모

- 브라질 전 세계 광물 생산 가치 기준 11위 국가
 - '23년 광물 생산량 가치 기준 약 17,795억 달러로 전 세계 2.4% 비중 차지

2023년 전 세계 광물 생산 가치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생산 가치	비중
1	중국	1,437,938	19.1
2	미국	1,014,955	13.5
3	러시아	720,184	9.6
4	사우디아라비아	459,643	6.1
5	캐나다	322,324	4.3
6	호주	301,556	4.0
7	인도	298,444	4.0
8	인도네시아	248,330	3.3
9	이란	204,869	2.7
10	남아프리카공화국	195,468	2.6
11	브라질	177,947	2.4
12	이라크	165,965	2.2
13	UAE	155,464	2.1
14	카자흐스탄	136,280	1.8
15	멕시코	108,657	1.4
합계		7,509,892	100.0

자료: 2024 세계 광물 보고서(International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World Mining Congress), 다이아몬드 제외

- '24년 생산량 기준 니오븀(1위), 철광석(2위), 흑연(4위), 니켈(8위)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핵심 광물 다수 보유

브라질 주요 광물 매장량 및 생산량

구분 (원광 기준)	매장량(톤)	세계 순위	비중 (%)	연도별 생산(톤)				세계 순위	비중 (%)
				2022년	2023년	2024년			
니오븀	16,000,000	1	94.1	59,800	78,700	71,000	1	89.8	
철광석	34,000,000	2	18.9	388,000	431,000	410,000	2	15.8	
흑연	74,000,000	2	22.4	63,600	82,000	87,000	4	6.7	
망간	270,000,000	3	15.9	494,000	542,000	400,000	6	2.0	
니켈	16,000,000	3	16.0	77,100	76,000	83,000	8	2.5	
희토류	21,000,000	3	16.2	600	500	80	10	0.03	
탄탈륨	40,000	3	-	470	360	370	2	18.5	
보크사이트	2,700,000	4	8.7	31,000	33,000	33,000	4	8.7	
바나듐	120,000	5	0.5	6,620	5,780	6,200	4	6.2	
주석	420,000	6	9.1	16,900	15,517	18,000	6	5.8	
마그네슘	200,000,000	6	2.9	1,800,000	1,600,000	1,500,000	4	5.6	
금	2,400	7	4.6	78	61	60	14	1.9	
리튬	250,000	8	1.0	1,420	1,700	2,200	5	1.7	

자료: U.S. Geological Survey(2020~2024)

- (수출) 브라질의 광물 수출은 '24년 기준 933억 달러
 -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45.7%), 미국(8.8%)이며, 한국은 1.9%로 9위

브라질 광물 수출 대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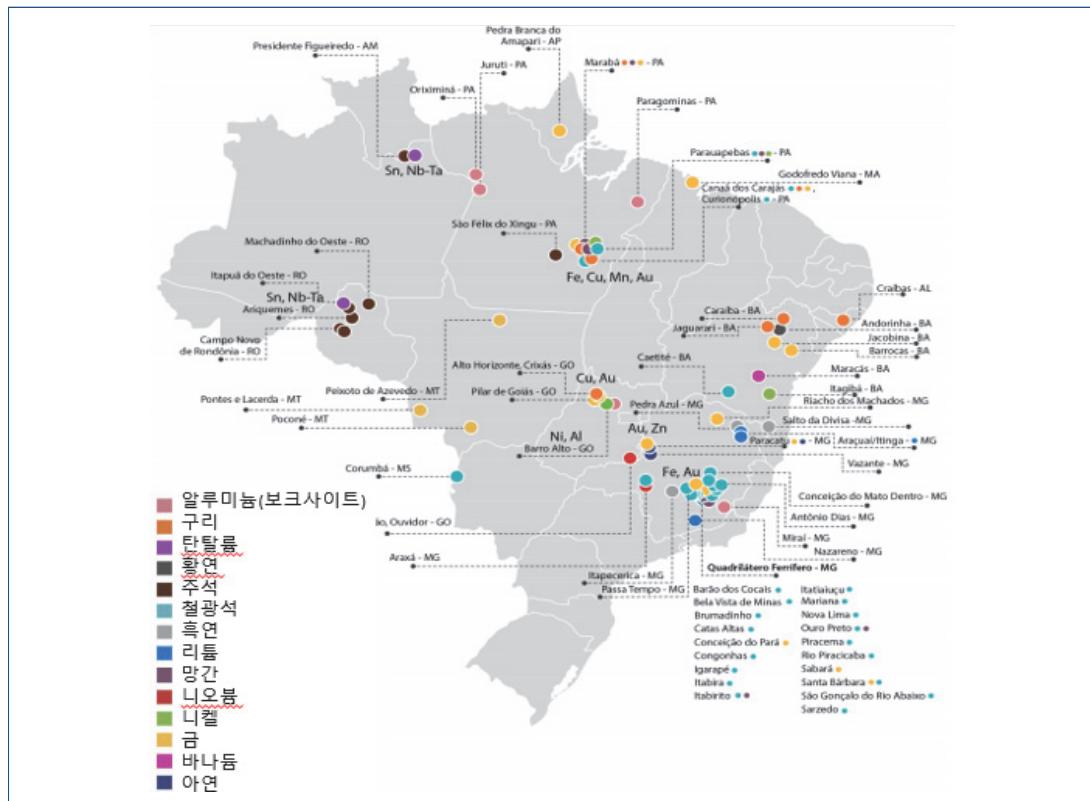
순위	국가	2023년	2024년	'23/'24년 대비 변화율		2024년 점유율
1	중국	41,510	42,607	2.6	45.7	
2	미국	6,503	8,172	25.7	8.8	
3	스페인	3,638	5,611	54.2	6.0	
4	싱가포르	5,968	5,320	-10.9	5.7	
5	네덜란드	4,811	4,262	-11.4	4.6	
6	말레이시아	2,598	2,817	8.4	3.0	
7	포르투갈	2,371	2,514	6.0	2.7	
8	칠레	3,177	1,993	-37.3	2.1	
9	한국	1,818	1,760	-3.2	1.9	
10	인도	717	1,312	83.0	1.4	

자료: 브라질 광물청(ANM), HS CODE 25(소금·황·토석류 등), 26(광·슬래그·회), 27(광물성 연료, 광물유 등) 기준

□ 동향

- 기존에 생산되던 철광석, 보크사이트, 금 외에 첨단산업 핵심 광물 탐사·개발 본격화
 - 미국, 영국 등 이차전지, 반도체 등의 핵심 광물인 리튬, 흑연, 희토류 등 탐사 확대

〈브라질 광물 생산·탐사 현황(2024년 기준)〉



구분	프로젝트명	위치(州)	참여 기업	현황
리튬	Grota do Cirilo	미나스제라이스	Sigma Lithium(캐)	생산
	Volta Grande	미나스제라이스	AMG(독)	생산
	Cachoeira	미나스제라이스	CBL(브)	생산
	Neves	미나스제라이스	Atlas Lithium(미)	개발(착공)
	Aracuai, Itinga	미나스제라이스	Lithium Ionic(캐)	탐사(환경영향평가)
	Salinas	미나스제라이스	Latin Resources(호주)	탐사(타당성조사)
니켈	Barro Alto, Codemin	고이아스	Anglo American(영)	생산
	Onca-Puma	파라	VALE(브)	생산
	Sata Rita	바이아	Atlantic Nickel(영)	생산

구분	프로젝트명	위치(주)	참여 기업	현황
니켈	Araguaia, Vermelho	파라	Horizonte Minerals(영)	탐사·개발(환경영향평가)
	Piaui	피아우이	Brazilian Nickel(영)	개발(착공)
코발트	Jaguar	파라	Centaurus Metals(호주)	개발(착공)
	Piaui	피아우이	Brazilian Nickel(영)	생산
망간	Vermelho	파라	Horizonte Minerals(영)	개발(착공)
	Igarape Azul	파라	Buritirama Mangnes(브)	생산
	Urucum	마투그로수두술	LHG Mining(브)	생산
	Morro da Mina	미나스제라이스	VALE(브)	생산
흑연	Serra do Navio	아마파	ICOMI(브)	생산
	Itapecerica, Pedra Azul, Salto da Divisa	미나스제라이스	Nacional de Grafite(브)	생산
	Maiquinique	바이아	Extrativa Metalquimica, Grafite do Brasil(브)	생산
	Santa Cruz	바이아	South Star Battery Metal(캐)	개발(시험생산)
희토류	Catalao 1 & 2	고이아스	Mosaic(미), CMOC(중)	생산
	Araxa, Tapira	미나스제라이스	Mosaic(미)	생산
	Minacu	고이아스	Mineracao Serra Verde(브)	개발(시험생산)
	Pocos de Caldas	고이아스	Meteoric Resources(호주)	개발(착공)
텅스텐	Carina	고이아스	Aclara Resources(캐)	탐사(환경영향평가)
	Pocos de Caldas	미나스제라이스	Mineracao Terras Raras(브)	탐사(타당성조사)
	Itapirapua	상파울루	Barra do Itapirapua(브)	탐사(타당성조사)
텅스텐	Brejui	파라이바	Mineracao Tomaz Salustino(브)	생산

- (정책 동향) 희토류 벨류체인 구축을 위한 법안 및 정책 논의

- 브라질 상원의원 호제리우 카르발류(Rogerio Carvalho)는 브라질 광업법을 개정하여 희토류 등의 전략 광물은 가공, 농축, 정제가 브라질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발의(PL 2197/2025)
- 발의된 법안은 최소 80%의 정제 과정이 브라질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원광 또는 비가공 상태의 수출을 제한
- 동 법안은 '25년 5월 8일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현재 처리 대기 중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76 |
| 2. 진출전략 | 78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26년 대선을 앞두고, 룰라 정부 지지층 확보를 위해 복지 확대, 제조업 강화, 인프라 투자 확대 추진
- 지역별 고용 창출 및 내수 확대를 위해 현지 생산 시 인센티브 확대
- 미국과의 외교 갈등, 브라질 내 정치 양극화 및 사법 갈등으로 정책 방향의 변동성 존재 가능성



경제(Economic)

- (경제성장률) '25년 경제성장률은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 예상
- (생산·소비) 지속적인 생산 부진, 소비는 회복 추세이나 불확실성 존재
- (금리) 물가상승률 둔화, 해알화 평가절하 방어를 위해 인하 기조
- (환율) 美 금리 인하, 대선으로 인한 정치 양극화 등 대내외적 불안 요소로 해알화 평가절하 추세 지속 예상



사회문화(Social)

- 고령화 추세이나 인터넷 보급·디지털 소비 확대로 구매력 증가
- 중남미 최대의 한류 소비 국가 중 하나로, K-뷰티, K-패션, K-푸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지역·계층별 소비 양극화가 확대되어 프리미엄, 저가형 시장 분리 가속화



기술(Technological)

- 산업 디지털화 가속화 : 정부 주도의 제조·물류 자동화,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 증가
- IT 인프라 개선 및 AI 활용 확대 : 5G 상용화 추진, 핀테크·모바일뱅킹 보급 확대
- 친환경 자동차정책(MOVER)으로 전기차, 배터리, 에탄올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수요 확산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IT 등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력 보유 • 한국의 안정적인 제품 공급 및 생산 능력 • 삼성·현대 등 브랜드 인지도 상승,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미체결국으로 체결국 대비 경쟁력 약화 • 원거리로 인한 높은 물류비 및 긴 운송 시간 • 언어·문화적 차이와 이해 부족으로 비즈니스 갈등 유발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자동차·항공), 첨단산업(IT·바이오), 인프라 강화 정책으로 협력 수요 증가 • 남미 최대 한류 소비국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인터넷 보급·중산층 확대로 구매력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브라질 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 위축 가능성 • 경기 하강에 따른 소비자 가격 민감도 상승 및 중국 저가 제품 유입 확대 • 헤알화 변동성 확대로 바이어 구매 지속성 악화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친환경·첨단기술 경쟁력 활용, 브라질 정부 중점 추진 정책에 적극 참여
- 한류 확산으로 한국 콘텐츠·소비자 선순환 활용

정부 정책 적극 활용하여
주요 산업 진출 강화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고품질 한국 제품의 A/S 대응력 강화하여 가격 경쟁 극복 및 브랜드 충성도 제고
- 프리미엄 가성비 추구 소비자 공략

기술적 차별성 강화 및
가치 소비자 타겟팅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브라질의 지정학적 이점 활용
- 한류 활용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가격·거리·언어 및 문화적 차이 극복

브라질을 남미 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현지 생산 확대 및 현지 물류 기반 구축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및 헤알화 변동성 방어
-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우호적 여론 구축

브라질 내수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투자 진출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자동차 부품

- 정부의 친환경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촉진 정책
- 브라질 맞춤형 내연기관 부품 수요 포착하여 시장 진입

항공기 부품

- 엠브라에르의 수송기 구매 절충교역으로 부품 공급 여건 조성
- 엠브라에르의 공급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협력 분야 확대

의료산업
(의약품·의료기기)

- 고령화 및 정부 복지 정책 확대로 수요 증가
- 현지 유력 파트너 제휴를 통한 조달, 인증 허들 극복

전력기자재

- 전력 매트릭스 다변화 추진에 따른 풍력·태양광·원자력 신규 건설 및 유지보수 프로젝트 활발
- 주·지자체마다 발주처 및 전력기업이 다양하므로 복수의 바이어 및 유통망 확보하여 진출 경로 다각화

전략 ① 정부 정책을 활용한 자동차 부품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동향)
 - 브라질 정부의 친환경 내연기관 생산 촉진 정책으로 내연기관 부품 수요 증가
- (진출전략)
 - 브라질 맞춤형 친환경 내연기관 부품 수요 포착하여 시장 진입

□ 현지 동향

- (특징) 사탕수수 농업이 발달하여 에탄올을 자동차 연료로 사용, 현지 생산자들은 주로 에탄올-가솔린 복합엔진(Flex)을 장착
 - * 2024년 등록 차량 중 78%가 Flex 차량(전기차 0.8%)
- (생산) '24년 기준 브라질 자동차 산업은 생산량 기준 세계 8위
 - 침체되었던 생산량이 '22년부터 회복('22년) 238만 대 → ('23년) 234만 대 → ('24년) 256만 대
- (수입) 브라질은 기어박스 및 부분품 수입이 가장 많으며, 엔진, 피스톤 부품 등을 주로 수입

브라질 자동차 부품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제품명	HS코드	수입액		
			2022년	2023년	2024년
1	기어박스 및 부분품	870840	340.2	315.3	289.4
2	자동차용 기타 부분·부속품	870829	54.9	42.6	51.2
3	구동·비구동 차축 및 부분품	870850	34.1	32.6	42.9
4	운전대·스티어링칼럼·운전박스 및 부분품	870894	28.1	20.7	23.3
5	차량 추진용 엔진	840820	0.4	3.6	18.4
6	피스톤 내연기관 부품(불꽃점화식)	840991	18.2	16.7	14.9
7	자동차용 기계	847989	17.9	43.8	14.5
8	서스펜션시스템 및 부분품	870880	13.0	10.1	12.9
9	피스톤 내연기관 부품(기타)	840999	14.4	11.7	12.6
10	기어, 기어링	848340	11.8	12.0	12.5

자료: Anfavea

- (정책 동향) 그린모빌리티(MOVER) : 친환경 내연기관 자동차 전환
 - 브라질 정부는 전체 자동차 산업 및 운송 부문의 지속 가능성 강화 및 저탄소 전환 촉진
 - 생산부터 차량 주행까지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관리 요구
 - 에너지 효율성 기준, 차량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자재 사용, 차량 배터리/하이브리드/전기차 및 바이오연료 활용 증대
 - 친환경·고효율 차량에 대해 세율 감면 혜택 제공하여 생산 촉진

MOVER 세부 제도

항목	세부 내용
녹색 IPI(IPI Ver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기타 산업제품에 대해 에너지 효율, 배출가스량, 재활용성 등의 환경 기준을 반영하여 차등 세율 적용. 친환경 차량에는 세제 혜택 제공
세제 인센티브·크레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기술 및 탈탄소화 관련 투자에 대해 법인세 공제, 세금 크레딧 제공 등 인센티브. 총 약 R\$ 19~20억 규모(2024~2028년)
배출가스 및 탄소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사에 "Well-to-Wheel" 전체 탄소 배출량 평가 요구. 차량의 생산–운행–폐기 전 과정에서 탄소저감 목표 설정 및 규제화 진행 중
혁신 기술 R&D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하이브리드, 바이오연료, 대체 추진 시스템 등 첨단 기술 개발을 장려. 정부가 지정한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우대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품 지속가능성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제조 시 재활용 자재 사용, 국산화율 기준 충족, 환경 인증 요건 등 강화. 지속가능한 차량 생산 기준 마련 및 친환경 자재 사용 유도

□ 유망 품목

-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 브라질 정부는 도로 안전 강화를 위해 자율 긴급 제동 시스템(AEB) 의무화 추진 중
 - 이에 따라 카메라, 레이더, 긴급 제동 시스템 모듈 등 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ADAS 관련 품목의 수요 증가 전망
- ECU 및 차량 전장 시스템
 - Stellantis, GM, Toyota, Volkswagen 등 주요 제조사들이 전장부품의 현지 조달 확대 및 기술 내재화를 추진 중이나 현지에서 생산하는 부품사는 Bosch, Delphi, Aptiv 등 일부에 불과하며 수입에 크게 의존
- 하이브리드 차량 열관리 부품
 - 그린모빌리티(Mover) 정책에 따라, 차량의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에코 스코어(Eco Score) 제도 도입
 - 친환경 차량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e-컴프레서, 배터리 쿨링 시스템 등 열관리 부품 수요 증가 예상

□ 진출전략

- 브라질 지역 특수성에 맞춘 제품 사양 조정
 - 유연연료자동차(FFV)의 높은 점유율, 고온·고습한 기후 환경에 적합하도록 전장부품, 내부 플라스틱, 하네스 등 현지화 필요
 - * 대부분의 차량이 FFV 방식으로 에탄올·가솔린 혼합 연료를 사용하기에 연료 계통 부품(연료 호스, 펌프, 씰 등)은 에탄올 내화성, 부식 저항성 강화 필요
- 부품 판매를 위한 현지 기술 테스트 및 필수 인증 대응
 - 주요 산업 벨트(São Paulo, Minas Gerais 등)에 거점 운영하여, 인증·검사 절차 신속 대응, 현지 파트너와의 기술 제휴를 통한 효율성 확보
- 현지 유통망 확보 및 AS 체계 동반 구축
 - 애프터마켓 비중이 높은 브라질 시장 특성상, 단순 부품 공급 외에도 유통, 설치, A/S까지 포괄할 수 있는 현지 네트워크 확보 필요
 - * 브라질 전체 차량의 70% 이상이 10년 이상 된 중고차로, 유지·보수 시장이 중요
 - 상파울루무역관에서 매년 운영하는 자동차부품전시회(Automec) 한국관, 연계 수출상담회에 참가하여 현지 유통망 네트워크 구축
- 브라질 진출을 위한 현지화 투자 및 생산전략
 - (합작 투자) 브라질 주요 Tier-1 또는 중소 부품사와의 합작 추진 시 진입장벽 완화 및 현지 유통망 인증 시스템에 신속히 적응 가능
 - (현지 조립) 반제품 또는 모듈 단위 수출 후 브라질 현지에서 최종 조립 진행하여 물류비·생산비 절감 및 세제 혜택 활용
 - * 대부분의 완성차는 메르코수르 외 국가로부터 수입 시 35% 관세율 적용

전략 ②

현지 제조사 공급망 프로그램을 활용한 항공기 부품 시장 진입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동향)
 -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 수출 실적 호조로 인한 항공기 생산 확대
 - 한국의 엠브라에르(Embraer)의 군용 수송기(KC-390) 구매와 관련한 절충교역 조건으로 항공기 부품 공급 여건 조성
- (진출전략)
 - 엠브라에르의 공급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협력 분야 확대

□ 현지 동향

- (개요) 브라질의 민간항공 규모 세계 2위, 제조사 엠브라에르(Embraer) 세계 3위
 - 597개의 유지보수 업체와 291개의 항공학교, 약 5,000개의 비행장·헬리포트 보유
 -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는 보잉, 에어버스에 이어 세계 3위 항공기 제조사
- (생산·판매) 브라질의 항공기 생산 체인은 엠브라에르(Embraer)를 중심으로 구축
 - 엠브라에르의 항공기 생산 및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
 - '25년 2분기 기준, Embraer의 항공기 확정 주문은 총 1,397대, 현재까지 인도 완료 960대, 잔여물량 437대('24년 수주잔고 187억 달러로 '18년 이후 최고)
- (수입) 항공기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항공기 부품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이 무역수지 적자 기록
 - 항공기 수출이 증가하며 항공기 부품 수입이 함께 증가하는 추세

브라질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3/'24년 증감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3/'24년 증감률
항공기	2,197	2,517	2,993	3,792	26.7	1,031	1,684	1,608	2,482	54.4
항공기 부품	400	489	554	588	6.1	1,036	1,114	1,240	1,495	20.6
총계	2,597	3,006	3,547	4,380	23.5	2,067	2,798	2,848	3,977	39.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엠브라에르 공급망 프로그램) 항공 체인 개발 프로그램(PDCA)
 - 엠브라에르는 브라질 산업개발청(ABDI)과 '11년부터 공급망 및 공급업체 육성, 품질 향상, 납기 및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PDCA 프로그램 실시
 - 공급업체 대상 교육, 개선 워크숍,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
 - PDCA 도입 이후 공급업체의 공급량 12%, 매출 12.4%가 증가하였으며, 온타임 납품률 7.7% 개선

□ 유망 품목

구분	품목	설명
구조부품	복합재 패널, 기체 외피, 스트링거 등	• Embraer E2 및 군수기용 복합재 경량 부품 수요 증가
동력계통	착륙장치 부품, 유압계통 부품	• KC-390 등 수송기에 필요한 구조·기계 부품
항공전장	항공용 센서, 와이어 하네스, 전자제어 모듈	• E/E 시스템 및 기내 전력제어 장치 수입 의존도 큼
내장품	기내 의자, 안전장치, 캐빈 조명	• Embraer 민수기용 OEM-MRO 동시 타깃 가능 품목

□ 진출전략

- KC-390 절충교역을 활용, 방산용 항공기 구조 및 시스템 부품을 공급 계약 방식으로 진출
 - 한국-브라질 방산 MOU 기반으로 공급 후보군 진입
 - 상파울루무역관에서 엠브라에르와 개최하는 'Embraer Week' 및 연계 수출상담회를 통해 네트워크 구축
- 엠브라에르의 PDCA(공급망 개발 프로그램)를 활용, 기술 협력 및 인증 획득 후 Tier 1~2 공급망 진입 전략 추진
 - 부품 시제품 제공, 공동 개발, 시험 납품 등 초기 단계 협력 중요
 - ISO/AS9100, NADCAP 등 항공인증 보유 기업 우대
- 현지 항공부품 유지보수(MRO) 기업과 협력하여, 정비용 부품(MRO Part) 중심으로 브라질 항공사 납품 연계 진출
 - GOL, Azul, LATAM 등 브라질 민항기 보유 기업 대상
 - 부품 교체 주기 기반 소모성 품목 중심 전략

전략 ③ 유력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바이오의료 시장 진입장벽 돌파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 고령화 가속 및 공공 의료서비스(SUS) 강화로 인해 만성 질환, 고령층 중심의 의료 수요 지속 확대
- (진출전략)
 - 브라질은 규제장벽이 높고 조달시장 진입이 복잡하므로, 현지 유력 파트너와의 제휴를 통한 진입장벽 돌파 중요

□ 현지 동향

- (개요) 중남미 최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소비시장
 - (의약품) '24년 기준 매출 규모 286억 달러로 중남미 최대, 세계 8위
 - (의료기기) '24년 기준 매출 규모 60억 달러로 중남미 최대, 세계 9위

브라질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 규모

(단위: 달러, %)

연도	의약품			의료기기		
	2022년	2023년	2024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억)	254	279	286	46	57	60
매출 증가율	1.9	9.8	2.6	12.2	23.9	5.3
1인당 지출액	118	129	131	23.6	26.4	27.6

- (수입) 의약품 및 의료기기 모두 수출액보다 수입액이 더 크며, 수입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 확대
 - '24년 수입액 기준으로 의약품은 투여형 면역제품이 33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기는 기타 의료·외과기기가 5.6억으로 가장 많았음

2024년 브라질 의약품·의료기기 10대 수입품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의약품			의료기기		
	HS코드	품목명	수입액	HS코드	품목명	수입액
1	30021590	기타 면역제품(투여)	3,305	90189099	기타 의료, 외과 기기	559
2	30049069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함유 의약품	1,556	90213910	인공관절	458
3	30049079	기타 헤�테로고리 화합물 의약품(기타)	890	90181980	기타 전기진단기기	363
4	30043929	기타 펩타이드 호르몬 제제(투여)	888	90213990	기타 보철기	350
5	30024129	기타 인체용 백신(투여)	739	90214090	청력 검사기	194
6	30049099	기타 의약품	545	90221200	CT 기기	177
7	30022029	기타 면역글로불린 및 분획	297	90222120	MRI 기기	171
8	30049039	기타 스테로이드 호르몬 함유 의약품	291	90221400	치과용 X-레이 기기	163
9	30049019	기타 항생제 의약품	248	90229080	의료장비 부품	158
10	30043219	기타 코르트코스테로이드	241	90182090	초음파 기기	157

자료: 한국무역협회

• 정부·민간분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 증가

- (정부) 통합 공공 보건 시스템(SUS)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 정부는 복지 확대 기조의 일환으로 1차 진료를 지역사회 단위까지 확대하는 'Programa Saude da Familia(가정 건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 증가
- (민간) 보험회사 및 사립병원들은 진료 비용을 경감하고자 질병 조기 진단, 예방 검사, 원격의료 등을 확대하고 있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요 증가

□ 유망품목

구분	품목	설명
의료기기	초음파 진단기, 치과용 CT, 체외진단기기(IVD), 인공관절	• 공공 조달과 민간 병원에서 수요 동시 확대, 고령층 타깃
디지털 헬스	원격진단 장비, 모바일 진단키트, 웨어러블	• 원격의료 규제 완화 및 원거리 의료 접근성 개선 수요
의약품	고혈압/당뇨/고지혈 치료제, 항암제, 희귀의약품	• 만성 질환 및 중증 질환 중심,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 유망
소모품	임플란트 소모품, 멸균포장키트, 진료용 키트	• 가격경쟁력 중심으로 치과 및 외래 병원 진입 가능

□ 진출전략

- PDP 제도 또는 현지 제약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 의약품·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출
 - 기술 이전 조건 충족 시 조달시장 우대 가능
 - 바이오시밀러·희귀질환 치료제는 고부가 품목 시장
- ANVISA 인증 부담이 큰 품목은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M&A 등을 통해 시장 진입
 - 현지 기업의 기소유 인증 및 인증 취득 노하우 활용하여 신속한 시장 진입

※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시장 진입 사례

- 화이자–Eurofarma : 코로나19 백신 생산 제휴를 통해 '22년부터 연 1억 도스 규모 생산 목표. 중남미 공급망 거점화 성공
 - 필립스–Einstein 병원 : '25년 공식 파트너십 발표. 브라질 톰티어 민간병원과의 협업 레퍼런스로 현지 확장 가속
 - 한국 치기자재 O사 현지 3위 기업 인수합병하여 인증 및 현지 생산 문제 해결
-
- 디지털헬스·원격진단 제품은 플랫폼 형태로 진출, 민간 병원·보험사와 연계 모델 개발
 - 현지 IT 인프라 성장과 규제 완화 정책 활용

전략 ④

지역별 발주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진출 경로 다각화



전략 수립 배경

- (현지 시장 동향)
 - 브라질은 풍력, 태양광, 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전력 믹스(Matrix) 다변화를 추진 중
- (진출전략)
 - 발전소 발주처 및 전력기업은 주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복수의 바이어·채널 확보가 중요

□ 현지 동향

- '25년은 브라질 인프라 총 투자액은 555억 달러로 전망되며 에너지 분야가 전체 투자액의 40% 이상을 차지

브라질 섹터별 인프라 투자액

(단위: 억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예측)		
	공공	민간	총액	공공	민간	총액	공공	민간	총액
에너지	22	207	229	25	200	225	29	197	226
통신	0.2	61	61.2	0.1	56	56.1	0.4	57	57.4
상하수도	40	28	68	44	38	82	30	62	92
교통	81	70	151	88	81	169	95	85	180
도로	68	25	93	67	25	92	69	24	93
항구	1	9	10	3	10	13	4	9	13
수로	0.4	0.6	1	0.4	0.6	1	0.8	0.6	1.4
철도	0.4	21	21.4	0.6	35	35.6	0.8	39	39.8
공항	0.4	6	6.4	0.6	7	7.6	2	7	9
도시교통	10	8	18	17	4	21	19	5	24
합계	143.2	366	509.2	157.1	375	532.1	154.4	401	555.4
GDP 대비 %	0.63	1.60	2.23	0.67	1.60	2.27	0.61	1.59	2.21

자료: Inter.B

- 브라질 전체 발전량 중 85% 이상이 재생에너지 기반
 - 수력 비중이 50% 이상이었으나 기후 변화로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태양광·풍력·원자력 에너지 개발 확대
 - '31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기업) 주마다 주요 전력기업이 다름

브라질 에너지 주요 프로젝트

주(State)	전력회사명	특징
Minas Gerais	Companhia Energética de Minas Gerais(CEMIG)	• 발전설비 약 6,692MW 규모. 주 정부 소유 기업 중 하나로 주요 발전사임
São Paulo	Companhia Energética de São Paulo(CESP)	• 설치용량 약 7,455MW
Paraná	Companhia Paranaense de Energia(Copel)	• Paraná 주정부 소유 주요 전력회사 중 하나
Santa Catarina	Centrais Elétricas de Santa Catarina S.A.(Celesc)	• 설치 발전용량 약 126MW 및 수력 기반 발전소 보유. 배전 네트워크 규모 큼
전국	EDP Brasil	• 발전 용량 약 2.3GW + 재생에너지/풍력/수력 포함 사업 보유. 배전 및 상업화 서비스도 제공.
전국	ENGIE Brasil	• 전체 설치용량 약 9,000MW 규모 (수력+열병합 등)
북부·아마파/ 파라 지역	Equatorial Energia	• 전력 배전 서비스 제공 • Pará 지역 배전량 11,610GWh를 약 3,064,000 소비자 유닛에 공급

- (프로젝트)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가 북동부 지역에서 진행되며, 원자력은 리우데자네이루의 기존 양그라 1, 2호기가 수명 연장되어 운행 지속

브라질 에너지 주요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명	위치(주)	발전용량(MW)	발주처
태양광	Helio Valgas Solar PV Park	Minas Gerais	766	Mercury Renew
	Sol do Sertão Solar PV Park	Bahia	475	EDF, Canadian Solar
	Pirapora Solar Complex	Minas Gerais	321	EDF
	ArcelorMittal/Atlas Solar Plant(Luiz Carlos complex)	Minas Gerais	265	Atlas Renewables, ArcelorMittal Brasil
풍력	Oitis Onshore Wind Farm Complex	Piauí	566	Iberdrola, Neoenergia
	Ventos de Santa Eugênia Wind Complex	Maranhao	519	Statkraft
	Two wind farms by SPIC in Rio Grande do Norte	Rio Grande do Norte	105	SPIC(중국)

분야	프로젝트명	위치(주)	발전용량(MW)	발주처
원자력	Angra I & II	Rio de Janeiro	1,875	운영 중 (유지보수 지속)
	Angra III	Rio de Janeiro	1,245	건설 중단 (공정률 60%)

- (정책) '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정용 소비자도 전력시장 자유시장 참여를 허용하여 발전소 및 전력기자재 투자 확대 전망

□ 유망 품목

구분	품목	설명
풍력	타워 구조물, 제어시스템, 감속기 부품	내륙형 중소형 풍력 설비 수요 증가, 현지 납품사 다변화 진행
태양광	태양광 지지대, 인버터, DC 케이블	분산형 태양광, 산업용 지붕형 프로젝트 중심 수요 확대
송배전 기자재	변압기, 개폐기, 절연장비, 스마트 계량기	전력 계통 효율화 및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따른 수요
원자력	원전용 제어계측, 점검장비, 비파괴검사기	Angra 원전 수명 연장 및 신규 SMR 검토에 따라 전문기술 수요 존재

□ 진출전략

- 브라질 북동부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에 EPC 기업과 연계하여 구조기자재·BOS 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진출
 - 현지 프로젝트별 입찰 일정에 맞춰 EPC사 또는 모듈업체에 공급
 - 브라질 인증(INMETRO) 및 ANEEL 등록 조건 사전 충족 필요
- 지역별 전력공사(CEMIG, CELPE, COPEL 등) 대상 스마트 계량기·변압기 등 송배전 기자재를 현지 유통망 통해 공급
 - 현지 유통사와 협력하거나, 브라질 전력기자재 조달 네트워크 활용
 - 스마트그리드 도입과 맞물려 B2G 수요 증가
- Angra 원전 및 SMR 개발 흐름을 활용하여, 고정밀 원전 유지보수 장비 또는 진단 솔루션을 기술 협력 방식으로 진출
 - 원전용 제어계측기, 비파괴검사기, 안전점검 장비 등 틈새 품목 중심
 - 현지 기업(NUCLEP, Eletronuclear 등)과 MOU 체결 검토



자동차 부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생산 세계 6위, 소비 8위로 중남미 최대 • 브라질 자동차 생산·소비 증가와 정부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으로 자동차 부품 수요 증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ier-1 부품사 45개 포함 약 500개 이상 진출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수요가 있으나 내수에서 생산되지 않아 관세 특혜를 주는 관세혜택제도(Ex-tarifario)를 활용하여 제조사 및 Tier-1에 수출 |

항공기 부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3위 항공기 제조사 엠브라에르의 생산 확대로 인한 부품 수요 증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엠브라에르 협력사가 다수 있으나 핵심부품 및 첨단소재는 수입에 의존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 공군 엠브라에르 수송기 도입 조건인 절충교역을 활용하여 공급망 진입 • 엠브라에르 부품 공급망 프로그램(PDCA)에 참가하여 부품 공급 분야 확대(제트기, eVTOL 등) |

의약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8위 제약 시장으로 중남미 최대 소비 국가 • 정부의 공공 의료 확대 정책, 고령화로 인한 민간시장 진단·치료 확대로 의약품 수요 증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제약 기업 상위 5개에 브라질 기업이 4개로 브라질 제약사 높은 점유율 유지 • 현지 기업들 일반 제네릭 생산은 강점을 보이나 특수목적 의약품, 바이오시밀러는 수입에 의존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정부의 공공 입찰, 민관 파트너십(PDP) 정책을 활용하여 시장 진입 • 단기적으로 현지 제약사를 통한 OEM 전략, 장기적으로 M&A 및 투자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 전략 |

의료기기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9위 의료기기 시장으로 중남미 최대 소비국가 3년('22~'25년) 평균 수입증가율 10.5%로 빠른 시장 성장 및 높은 수입 의존도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독일, 일본 수입이 많으며, 진출 기업도 다수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질 정부의 공공 입찰, 민관 파트너십(PDP) 정책을 활용하여 시장 진입 단기적으로 현지 의료기기 업체를 통한 OEM 전략, 장기적으로 투자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 전략 |

전력기자재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질 전력망의 노후화, 전력망이 부족한 북동부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건설 증가로 전력 기자재 수요 증가 인프라 총 투자액 중 전력 부문이 40% 이상 차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질 기업 WEG가 전동기 및 스위치기어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고압 변압기, 특수 절연체 등은 수입 의존 비중 높음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공공 조달, Novo PAC 등의 전력인프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장 진입 주·지자체마다 전력회사가 다르므로, 다양한 협력사 및 유통망 확보 |

피부관리기기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질 뷰티 시장 규모 약 226억 달러로 세계 4위 중산층 확대, 피부 관리 트렌드 확산으로 에스테틱 산업 빠르게 성장('30년까지 연평균 성장을 8.2%)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기술이 탑재된 ANVISA 최고 등급(Class III) 생산기업은 Medical San 등 소수 고사양 미용기기는 대부분 수입품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NVISA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어를 통한 시장 진입 장기적으로 자체 인증 취득 및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 |

비료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질 최대 농산물 생산국이나 비료 생산 부족으로 수요의 약 80% 수입에 의존• 농산물 생산 확대에 따라 비료 수요 및 수입 증가 전망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브라질 정부가 정책적으로 내수 생산을 촉진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수입 수요 대체 불가능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질 주요 농업박람회 참가를 통한 기업 및 제품 홍보• 주요 농업 기업이 전국에 분포해 있는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현지 유통 채널 확보 |

산업용 자동화기기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질 산업용 자동화기기 시장 47억 달러('24년)에서 79억 달러('31년)로 연평균 성장을 7% 전망• 정부의 생산설비 투자 촉진(감가상각가속화 프로그램) 및 디지털 전환(NIB) 정책으로 자동화기기 수요 증가 전망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B, Siemens 등의 외국 기업과 WEG 등의 현지 기업이 시장에서 강세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강점인 IoT/AI 기반 솔루션을 결합하여 경쟁기업과 차별성 강화• 브라질 내 합작법인(JV) 또는 OEM 조립시설 확보하여 부품 조달 및 최종 조립 현지화로 가격경쟁력 확보 |



디지털 헬스케어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63억 달러('24년)에서 219억 달러('30년)로 연평균 성장률 23% 전망 • 코로나19로 원격의료 규제 완화 및 전자의료기록(EMR) 시스템 도입 증가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빠르게 성장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로 브라질 진출역사가 오래된 GE, Siemens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 제품과 통합이 가능한 디지털 솔루션 제공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NVISA 인증, 개인정보보호법(LGPD) 등 규제 사전 준비 • EMR, 진단 솔루션과 같은 반복적 수요가 있는 서비스 중심으로 구독형 모델 도입 |

사이버보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기업·정부 기관의 보안 투자 증가 • 중남미 해킹·랜섬웨어 피해 상위 국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기업들이 컨설팅·클라우드 보안 분야 점유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또는 원격근무 증가 추세를 활용해 보안 교육 및 매니지드 보안 서비스(MSSP) 제공 |

게임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게임 소비국 • 스마트폰 보급률 90% 이상으로 모바일 게임 인기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ncent, Activision, Epic Games 등 중국·미국 기업 강세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문화 요소, 언어(포르투갈어) 적용 및 현지 결제 시스템(Pix 시스템) 연동으로 현지화 강화 • 게임 스트리밍, e스포츠 이벤트, 커뮤니티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확보 |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라질의 원자력 발전소 Angra 1이 최근 20년 운전 연장 허가를 받아, 60년 운영 목표로 조정• 노후 부품 교체, 검사, 안전성 보강 등 유지보수 수요 증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및 프랑스 업체 유지보수 입찰 수주 이력 다수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이 강점이 있는 비파괴 검사(NDT), 예측 정비 등의 분야부터 진입• Angra 1 운전 연장 및 Angra 3 건설 재개 계획 활용하여 장기 O&M 계약 또는 사용 연장 프로젝트 참여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브라질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바이오·의료	CIOSP 연계 치과 기자재 수출상담회	1월/상파울루
뷰티	K-뷰티 온라인 수출상담회	3월/온라인
자동차 부품	Automec 연계 자동차 부품 수출상담회	4월/상파울루
방산	중남미 방산수출협의회	4월/산티아고
바이오·의료	Hopitalar 연계 헬스케어 수출상담회	7월/상파울루
바이오·의료	바이오테크 온라인 수출상담회	9월/온라인
ICT·인프라	K-LAC Business Summit	3분기/미정
항공·우주	Embraer 수출상담회	하반기/상파울루
무역사절단	품목별·지역별 무역사절단	연중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 온라인 수출상담회	미정/온라인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6 대통령 선거	2026.10.04.(1차) 2026.10.25.(2차)	1차 개표시 50% 미만일 경우 2차 투표

주요 경제·통상 일정

해당없음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6 브라질 상파울루 치의학 전시회 (CIOSP)	2026.1.28.~31.	치과 기기, 장비 및 재료
2026 브라질 농업기술 전시회 (AGRISHOW)	2026.4.27.~5.1.	농업, 축산 장비 및 기술
2026 브라질 보안 (LAAD Security & Defence 2026)	2026.4.14.~16.	방위, 보안 산업
2026 브라질 상파울루 의료기기 전시회 (HOSPITALAR)	2026.5.19.~22.	의료기기, 장비
2026 브라질 상파울루 슈퍼마켓 전시회 (APAS Show)	2026.5.18.~21.	식품 및 슈퍼마켓 기자재
2026 브라질 상파울루 보안장비 전시회 (EXPOSEC)	2026.6.1.~3.	치안용품, 보안장비
2026 K-LAC Business Summit	2026.3분기	ICT, 인프라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곽영서	과장	상파울루무역관	55-11-3175-3030(033)	youngsk@kotra.or.kr
2	홍주연	Senior Specialist	상파울루무역관	55-11-3175-3030(034)	anika@kotra.or.kr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6

브라질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28-7 (95320)